



금수강산



8

주체112(2023)

루계 제408호 월간

표지: 경축의 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경축하는 평양의 김일성광장이다.

전승을 안아온 1950년대의 조국방위자들에게 드리는 꽃다발인양 터져오르는 축포는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조선중앙통신

.....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 2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 18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 70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 20 ||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기념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 24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대공연 진행
- 28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 70돐을 맞으며 로씨야련방 국방상 쎬르게이 쇼이구동지와 함께 무장장비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 30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방상을 접견하시고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 34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였다
- 36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연회에 초대하시였다
- 40 ||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뜻깊게 경축



2



46



68



70



72

대담

- 44 || 사회주의문명의 밝은 미래를 펼쳐간다
- 46 ||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조국
- 52 || 건설자가정
- 54 || 질 좋은 건축용칠감을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중에서
- 56 || 단합의 리념아래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맞으며
- 58 || 부강조국건설의 만년로대를 마련하시어
- 59 || 조국해방을 위한 3대로선을 제시하시어
- 60 || 인공지구위성보유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어
- 62 || 산골군의 고려약공장에서 명약품들을
- 64 || 대중체육열기가 안아온 우승
- 68 || 전도양양한 청년과학자집단
- 70 || 회령오지

편지

- 71 || 새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 조국의 품에 안겨
- 72 || 수리공학분야에 바쳐온 40여년
- 74 || 로세대동포들은 애국의 뿌리이다
- 75 || 조선의 단청 기둥무늬
- 민족의 향기
- 76 || 은하수에 비낀 견우직녀전설
- 조선의 옛 화가들의 이야기를 펼치고
- 78 || 국보적작품을 복원시킨 진재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 성대히 거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전승의 명절인 7월 27일 저녁 수도 평양에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광장에 도착하시자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엄숙한 영접의식이 진행되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 대장의 영접보고를 받으시고 명예위병대와 조선인민군 주요부대 군기들을 사열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최고사령관동지를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열병광장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조선혁명의 명맥에 진함없는 활력을 부어주시고 주체조선의 백승의 력사를 만대로 이어갈 굳건한 담보를 마련해주신 탁월한 령도자, 위대한 령장을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며 전체 열병대원들과 경축행사참가자들이 터치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





호를 올리는 열병대원들과 경축행사참가자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동지와 국방성 지휘관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장, 정치위원들, 련합부대장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과 정부, 군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온 로병간부들이 주석단특별석에 자리잡았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련방 국방상 셰르게이 쇼이구대장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홍충동지를

비롯한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와 중국의 외교대표들이 주석단에 초대되었다. 전쟁로병들, 전시공로자들, 원군미풍열성자들, 공로자, 로력혁신자, 모범군인들, 렬사들의 자손들을 비롯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행사참가자들이 초대석에 자리잡

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 게양식이 엄숙히 진행되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국기를 경건히 우러르며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경축하여 21발의 레포가 발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인 강순남동지가 연설하



였다.
이어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동지께 리병철 원수동지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돛경축 열병식이 준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억만금으로도 살수 없는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신 조국해방전쟁시기 지휘관상징종대의 입장으로 장엄한 열병식이 시작되었다.

수령에 대한 충성을 의무이기 전에 량심과 영예, 도덕과 의리로 간직하고 위대한 전승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위훈의 자욱을 아로새긴 김책, 강건, 김일, 류경수동지를 비롯한 항일의 용장, 반미대결

전의 맹장들의 초상사진을 대오에 세우고 행진해가는 상징종대의 뒤를 이어 친위중대 상징종대가 나아갔다.

조국해방전쟁의 매 전략적 단계마다 진격의 돌파구를 피로써 열어제낀 불멸의 공훈을 군기마다에 새겨안고 혁명무력의 첫 근위부대, 전실적인 근위사단, 근위련대 상징종대들이 지축을 울리며 련이어 광장에 들어섰다.

포화속을 뚫고 군수물자수송에서 무비의 위훈을 세운 조국해방전쟁시기 철도병상징종대, 포성없는 전구들에서 적들의 침략전쟁기도를 제때에 알아내고 수많은 간첩과피압해분자들을 적발속청하며 전쟁승리에 특출한 기여를 한 내무성상징종대에 이어 항일의 고귀한 전통을 계승하여 남녀

로소가 침략자들과의 결전에 나섰던 불굴의 항전사를 전하는 소년 및 남녀빨찌산상징종대가 붉은기와 소년단기를 나뭇기며 광장을 활보해갔다.

전승세대의 영웅정신과 투지, 기백이 차넘치는 열병광장으로 전쟁의 철화를 헤쳐온 기계화중대들이 기세차게 전진해갔다.

침략의 무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며 전쟁개시 3일만에 적의 아성으로 남먼저 돌입하여 파괴중앙청에 공화국기를 게양하였던 312호땅크를 선두로 조국해방전쟁시기 서울해방상징종대가 온 시가를 들끓게 했던 력사의 그날의 격정과 환희를 안고 동음을 기운차게 울리었다.

최고사령부의 안전을 지켜 수도의 대공방어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며 전쟁 전기간 640여대의 적비행기를 격추, 격상시키는 전과를 이룩한 근위고사포병연대들의 상징종대가 금별의 위훈 빛나는 포신들을 추켜들고 광장을 누벼나갔다. 조국의 한치맛을 지켜 불사신으로 솟구치며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멸적의 명중탄만을 날리던 중기마차종대에도 결사의 조국수호정신, 주체의

전법과 전술로 미제의 수적, 기술적우세를 타승한 혁혁한 군공이 빛받았다. 상징종대들의 뒤를 이어 당중앙결사옹위정신, 영웅적전투정신이 짝 들어찬 사상과 신념의 강군, 최정예혁명강군의 대표자들이 힘찬 발걸음을 내짚었다. 항일의 혈전길에서 개척되고 항미의 불바다속에서 더

욱 굳건해진 수령보위의 고귀한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며 수령이 가리키는 승리의 한길로만 달음쳐나가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전진기상을 안고 명예기병종대가 말발굽소리를 높이 울리었다. 당중앙결사옹위에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이 있다는 백승의 철학, 불변의 진리를

옹변하며 당중앙위원회 호위처종대, 국무위원회 경위국종대, 호위국종대, 호위사령부종대가 위엄있게 나아갔다.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에서 승리만을 떨쳐온 무적의 사단, 려단들의 군기를 자랑높이 나뭇기며 전선군단종대들이 멸적의 장검을 비껴든 군단장들의 인솔하에 행진해갔다.

조국의 령해와 령공을 지켜 력사의 갈피갈피에 오만하게 날뛰던 미제침략자들에게 참패를 안긴 승전신화들을 가득 채운 해군, 공군종대와 공화국무력의 불가항력의 상징인 전략군종대, 특수작전군종대들에도 미제의 쓰디쓴 패배의 전통을 속명으로 만들어버릴 도도한 기상이 서리받쳤다. 우리 식의 주체전법, 일당

백공격정신으로 적진에 번개치며 원수들에게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처절한 참패를 안길 만단의 림전태세를 갖춘 적후산악활동부대종대, 제41상륙돌격대대종대가 주석단을 우러러 행진해갔다. 반미대전의 불바다를 헤쳐온 위대한 혁명세대들처럼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 명령을 관철하는 길에 둘도 없





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치며 그 길에서 인생의 모든 영광을 맞이하리라는 불같은 맹세의 함성이 진감하는 열병광장으로 수도방어임무를 맡은 군단종대들, 조국의 해안과 국경연선, 후방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선 군단종대들이 굽이쳐갔다.

땅크장갑사단, 기계화보병사단종대들과 정찰총국종대에

이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종대, 김정일군정대학종대, 김일성정치대학종대가 위풍당당히 진군해갔다.

주체혁명위업의 억년청청함을 담보하는 핵심골간육성의 원종장에서 혁명의 원피줄기, 승리의 전통을 대를 이어 굳건히 이어나가는 미더운 계승자들의 대오인 혁명학원종대들과 조국땅 방방곡곡에 철벽

의 진을 치고全民항전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가는 로농적 위군종대가 용기백배하여 발구름을 높이였다.

사회주의조국의 고귀한 전취물과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수호해가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정치보위대, 혁명무력의 일익을 담당한 정예부대의 위용떨치는 국가보위성종대, 사회안전성종대, 사회안

전군 무장기동부대종대마다에도 계급투쟁의 전구들에서 위훈을 떨쳐갈 전투적기상이 충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을 받드는 일편단심에 전승세대의 넋을 만장약하고 위대한 전승사와 그 승리를 지켜온 70년력사를 700년, 7,000년으로 길이 빛내여갈 신념의 맹세로 격동치는 열병종대들



에 손을 높이 드시여 격려해주
시였다.

전승절의 환희와 경축열기
로 뜨겁게 달아오른 광장상공
을 뒤울리며 인민공군의 장쾌
한 열병비행이 시작되였다.

격렬함과 영웅성에 있어서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조
국의 위대한 승전사를 7월의
하늘가에 아로새기며 오각별과
수자 《70》을 형상한 비행중
대가 광장상공을 통과하였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 계속되
는 참여한 대결전에서 침략자





할수 있는 강대한 국가와 인민의 절대적인 힘의 실체, 정의와 평화수호의 보검인 전략무력의 위상을 체현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종대가 영웅발사대차를 선두로 광장주로를 메우며 진군해갔다.

열병식이 끝나자 또다시 격정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경축의 축포가 황홀한 불보라되어 전승절의 밤하늘에 끝없이 터져올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손을 높이 드시고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열병식은 위대한 영웅정신과

의 후예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안길 혁명무력의 강대성과 현대성, 대적의지를 보여주며 기계화종대들이 열병진군을 개시하였다.

무기가 부족해 조국의 남해를 지척에 두고 진격을 멈춰야만 했던 전승세대의 피땀한을 가슴후련히 풀며 국토수복의 판가리결전의 선두에서 질풍처럼 주력땅크종대와 무자비한 포화로 전선부대들의 진격로를 열어제길 인민군대의 제1병종인 포병종대들의 철의 흐름이 열병광장에 노도쳤다.

적들과 정면승부를 내야 할 고대하던 시각이 도래한다면 전대미문의 소탕전, 최후의 섬멸전으로 대담할 혁명무력의 초강경립장을 세계앞에 선언하며 발사전야의 격동상태

에 있는 전술미사일종대와 장거리순항미사일종대들이 광장으로 진입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무기종대들이 기세차게 나아갔다.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적대세력들의 각이한 반공화국핵전쟁위협과 도발적인 침략행위들을 철저히 억제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며 우리 국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하는 공화국전략무력의 가장 강력한 핵심주력수단인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8》형을 이끌고 미사일총국 제2붉은기종대가 광장에 들어서자 관중들의 걱정과 환희는 고조를 이루었다.

지구상에서 제국주의폭제를 끝장내고 인류의 미래를 구원





투쟁기풍으로 사회주의전면적
부흥발전을 가속화하며 반제
반미성전에서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전승신화를 창조해나갈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의지를
만천하에 파시한 대정치군사축
전으로 조국청사에 찬연히 아
로새겨지게 될것이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 70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전승 70돐에 즈음하여 7월 25일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참전렬사묘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피어린 승리, 값비싼 희생으로 조국과 인민의 자주권과 안녕을 영예롭게 수호하고 고귀한 사상정신적유산과 승리전통을 우리 공화국의 억척불변한 강대성의 초석으로 고인 위대한 년대의 려사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지구의 동방일각에서 반제투쟁의 전초선을 굳건히 지키며 안아온 7. 27의 기적은 조국의 명예와 자주권을 결사수호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특출하고도 열렬한 애국위업의 승리인 동시에 침략의 원흉 미제에게 영원히 씻을수 없는 수치와 패배를 안기고 새로운 세계대전을 막아낸 인류사적인 대승리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승세대가 피와 목숨을 바쳐 이룩한 값비싼 전승과 장장 70성상 세기와 세대를 이어 미제와의 굴함없는 대결전에서 떨쳐온 백승은 그 어떤 힘으로도 정복할수 없는 인민의 나라, 정의로운 국가의 실체를 온 세상에 명확히 각인시킨 조국보위, 평화수호의 참다운 본보기이라고 하시면서 이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력사우에 우뚝 세운 긍지높은 준위로 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와 전통이 위대하고 계승이 굳건한 국가는 필승불패이라고 하시면서 위대한 년대에 발휘된 영웅정신과 투쟁본태를 우리 혁명특유의 불가항력으로 빛나게 계승해나갈 때 세계에서 가장 존엄있고 자주적인 강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영원히 승승장구할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 * *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기념보고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였다

1953-2023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기념보고대회가 7월 27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고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도당책임비서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전쟁로병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 대련합부대장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로씨야연방 국방상 셰르게이 쇼이구동지와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리홍충동지가 주석단에 자리잡았다.

보고대회에는 위대한 영웅시대의 주인공들인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 원군미포열성자들, 공로자, 로력혁신자, 렬사들의 자손들, 청년건설자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혁명학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로씨야연방 군사대표단,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기념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조국해방전쟁은 강대한 외래제국주의의 무력침공으로부터 우리의 주권과 평토와 인민을 지켜내기 위한 조국수호전인 동시에 전세계를 지배하려는 미제의 오만한 기도로부터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진영을 보위하고 인류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진보와 반동간의 전면전쟁으로서 그 간고성과 격렬성에 있어서 미증유의 기록을 남



기였다고 말하였다.

갖 창건된 주권국가와 백수십년의 침략전쟁력사를 가지고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와의 대결은 너무도 가혹한 시련이었지만 우리 국가와 인민은 시대와 력사가 부여한 자기의 책임과 사명앞에 용감하게 나섰으며 힘있게 일떠서서 제국주의전쟁광들의 침략공세를 좌절시키는 기적을 창조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전승과 더불어 우리 공화국은 가장 포악하고 강대한 미제와 견결히 맞서 싸워 자주와 정의의 동방의 보루로 세계의 시각에 뚜렷이 새겨졌으며 존엄높은 우리의 국호와 국기는 영웅성의 상징으로, 반제투쟁의 승리의 기치로 누리에 빛나게 되었다고 하면서 조국해방전쟁승리의 력사적의의와 심원한 의미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국청사에 금문자로 빛나는 전승의 력사적의의는 가장 준엄한 환경속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영웅적투쟁사를 개척하고 그것을 조선혁명의 전통으로, 우리 국가발전의 성격으로 굳혀놓은데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참혹한 비극으로 될수도 있었던 전쟁의 년대를 승리로 바꾼 그 위대한 력사가 있어 것처럼 혹독한 년대와 년대들에 새로운 리정표를 세우며 부국강병의 대업을 완수한 새 조선의 력사

가 탄생하였고 온갖 불의와 폭제를 짓부시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지켜낸 전설의 70년이 청사에 새겨졌다고 지적하였다.

연설자는 조국해방전쟁은 승리의 영광과 함께 다시는 참혹한 전쟁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강렬한 체험과 기어이 딛고 올라야 할 강국의 목표를 주었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미제의 침략야망을 짓부실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면 이 땅에서 전쟁의 결속이 정전이라는 말로 끝나지 않았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행성에 미국이라는 침략적실체, 패권적실체가 존재하기에 우리 국가와 인민이 써나가는 힘의 력사는 멈출수도 늦출수도 없다고 하면서 만일 미제가 대세의 흐름과 변화된 현실을 똑똑히 보지 않고 분별없이 날뛰며 조선에서 두번다시 전쟁을 도발한다면 그 과도한 야망과 함께 력사의 무덤에 매장되고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70년전 우리 인민이 세계평화에 호인민들로부터 사심없는 정신적 및 물질적방조를 받으며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정의가 부정의 이기고 진보가 반동을 이기는 위대한 력사를 창조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중국당과 정부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기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조선전선에 파견하여 희생적으로 전쟁승리에 기여하였으며

자기 조국의 안전을 보위하고 사회주의동방초소를 지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고 말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은 우리 군대와 한전호에서 싸우면서 견결한 반제혁명정신으로 하나를 이루고 그 혁명적단결로써 승리하는 훌륭한 전통을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당과 인민은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이 세운 전투적공훈과 력사적공적을 절대로 잊지 않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조국의 위대한 명절을 축하하여 평양에 온 친선적리방인 로씨야련방의 국방상 쉼프게이 쇼이구대장동지를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하면서 자기의 주권적권리와 안전리익을 위협하고 해치는 무리들을 타승하고 강력한 로씨야를 건설하기 위한 력사적싸움에 떨쳐나선 로씨야정부와 군대와 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전투적경의를 보내었다.

그는 패권과 팽창을 추구하여 행성의 곳곳에서 류혈적인 대결과 정변, 전쟁을 조작하고 부추기며 다른 나라들을 구속하며 해치려는 지배주의세력과 강권행위가 존재하는한 그 어느 나라와 지역도 안전할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와 인민은 미국의 패권에 반기를 드는 나라들의 편에 확고히 서서 그들과 한전호에서 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조선인민의 승리 70돐을 경축하기 위한 기념보고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온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쨌동의 축하연설을 로씨야련방 국방상 쉼프게이 쇼이구동지가 대독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명절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와 대회참가자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온 뿌쨌대통령의 연설에 열렬한 환호로써 감사의 정을 표시하였다.

보고대회에서는 영웅조선의 승리의 전통을 빛내이는데 불멸의 공헌을 한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에게 보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가 전달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 기념보고대회는 투철한 조국수호정신, 혁명보위정신을 승리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선렬들이 목숨바쳐 지켜낸 우리 조국을 무궁번영하는 사회주의강대국으로 일떠세울 우리 당과 인민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힘있게 파시한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 * *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대공연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을 방문한 친선의 사절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존엄높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전행로에 승리의 거대한 봉우리로 솟아 영웅성과 정의의 상징으로 빛나는 전승 70돐을 청사에 특기할 영광과 계승의 대축전으로 기념하는 환희와 격정을 더해주며 7월 27일 0시 경축대공연이 진행되었다.

동방일각에 일떠선 첫 인민의 나라, 신생공화국이 《전쟁의 세기》로 불리우는 20세기의 한복판에서 미제국주의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격퇴한 력사의 7. 27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2만 5, 568일의 장구한 나날 전승의 3년과 그 승리를 지킨 불굴의 70년이 주는 값비싼 명예와 존엄을 안고 국가와 전체 인민의 명절인 전승절을 의의깊게 맞이한 크나큰 공지와 자부로 공연장소는 세 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평양을 방문한 친선의 사절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대표단 단장들과 함께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환호성이 장내를 진감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비롯한 경축행사참가자들이 공연을 보았다.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과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 성원들이 공연관람에 초대되었다.

대공연에는 공훈국가합창단, 국무위원회연주



단, 왕재산예술단을 비롯한 중요예술단체들과 사회와 군대의 예술단체, 예술교육기관 예술인, 학생들이 출연하였다.

서곡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우리의 7. 27》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전사가요들과 전승찬가들, 계승의 년대들에 메아리친 신념의 노래들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불멸의 송가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를 통하여 출연자들은 세계 《최강》을 떠드는 미제의 오만성과 전횡이 극도에 달하였던 준엄한 시기에 인민을 제국주의폭제를 징벌하는 백절불굴의 정신과 무비의 힘을 지닌 최강자들로 키우고 인류가 경탄하는 기적의 전승사를 창조하시

여 반제자주, 민족해방혁명의 거세찬 폭풍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고의 업적을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승열병식장에서 승리를 선언하시는 기록하신 영상이 무대화면에 모셔지고 친근하신 음성이 만장을 울리자 관람자들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탁월한 전략전술, 강철의 신념과 의지로 준엄한 반제반미성전의 거대한 승리를 쟁취하시어 조국의 운명과 인류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신 불세출의 령장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에 넘쳐 열광의 박수를 터쳐 울리었다.

싸우는 조선의 방방곡곡에서 높이 울려 퍼졌

던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를 비롯한 전사가요들이 전설적인 년대에 대한 경건한 추억을 불러오며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리었다.

삶과 죽음, 피와 눈물, 사랑과 증오로 이어진 전쟁의 3년간 조국방위자들이 포연탄우를 뚫고 육박해간 무수한 진군길, 원썬격멸의 백병전과 승리를 믿어 아낌없이 바친 애국의 열과 정이 뜨겁게 맥박치는 종목들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영웅적군민이 떠올린 우리 국가의 존엄과 명성이 얼마나 준엄한 결사항전의 산아인가를 감명깊게 구가하였다.

평양을 찾은 친선의 사절들을 위해 특별히 준

비된 중국노래련곡과 로씨야노래련곡이 울리자 장내는 반제자주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맺어지고 공고화된 친선단결의 력사와 전통이 세기와 더불어 즐기치게 계승발전되리라는 확신과 우애의 열기로 달아올랐다. 공연은 종곡 《인민은 우리 당에 영광드리네》, 《우리의 7. 27》로 막을 내렸다.

공연이 끝나자 열광의 환호성이 또다시 장내를 진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출연자들의 공연 성과를 축하하시며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 70돐을 맞으며 로씨야연방 국방상 셰르게이 쇼이구동지와 함께 무장장비전시회장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의 주최로 《무장장비전시회-2023》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26일 로씨야연방 국방상 셰르게이 쇼이구동지와 군사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무장장비전시회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시회장에 도착하시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순남동지가 영접보고를 올리였다.

조선로동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국방성 지휘관들, 조선인민군 대련합부대, 련합부대 군정지휘관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셰르게이 쇼이구동지와 로씨야연방 군사대표단 성원들이 전투적우의와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국가와 인민의 대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한데 대하여 다시금 사의를 표시시였다.

셰르게이 쇼이구동지는 김정은동지께서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의 체류일정을 깊이 관심해주시고 뜻깊은 계기를 마련해주시며 환대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셰르게이 쇼이구동지와 함께 신형무장장비들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셰르게이 쇼이구동지에게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발전계획에 따라 연구개발생산되여 최근시기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있는 무기전투기술기재들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세계적인 무장장비발전추세와 발전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셰르게이 쇼이구동지와 담소하시면서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두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국제적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군대와 인민이 강력한 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쟁취하리라는 확신을 거듭 표명하시였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국방상을 접견하시고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7월 26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축하방문하고있는 셸르게이 쇼이구 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쇼이구 국방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쇼이구 국방상과 친선적인 담화를 나누시였다. 석상에서 쇼이구 국방상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온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쨌동지의 친서를 정중히 전해드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따뜻하고 훌륭한 친서를 보내준 뿌쨌대통령에게 사의를 표시하시면서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명절을 축하하기 위해 쇼이구 국방상이 이끄는 군사대표단을 평양에 보낸 대통령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였다.

담화에서는 뿌리깊은 조로친선의 역사를 감회깊이 추억하면서 국방안전분야에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과 지역 및 국제안보환경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견해일치를 보았다.

담화는 시종 친선적이며 전투적우의의 감정이 넘치는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담화가 끝난 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쇼이구 국방상이 성의껏 마련한 선물을 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로씨야련방 국방상의 우리 나라

방문을 기념하여 자신께서 마련하신 기념품을 쇼이구 국방상에게 선물하시였다.

중요한 계기에 이루어진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셸르게이 쇼이구 로씨야련방 국방상사이의 상봉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략적이며 전통적인 조로관계를 가일층 강화발전시키고 급변하는 지역 및 국제안보환경에 대처하여 국방안전분야에서 두 나라사이의 전략기술적협동과 협조를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승절인 7월 27일 국방상 쉘레게이 쇼이구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조용원동지, 리병철동지와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순남동지, 외무상 최선희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 국방성 지휘관들과 조선인민군 군종사령관들, 대련합부대, 련합부대장들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였다.

연회에 앞서 로씨야련방 국방상 쉘레게이 쇼이구동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보내온 로

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선물을 정중히 전해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이 뜻깊은 선물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연회에서는 리병철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전승 70돐을 맞으며 의의깊은 자리를 같이한 가장 가까운 전우이며 형제인



쇼이구 국방상동지와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의 전체 동지들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두 나라의 혁명선렬들이 혈전의 고비를 함께 넘으며 마련하고 소중히 가꿔온 조로친선이 김정은동지와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각별한 관심속에 불패의 전우관계, 백년대계의 전략적관계로 승화발전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로 두 나라 군대와 인민은 미국의 강도적인 세계패권전략에 사상으로써, 무장으로써 맞서 국가의 주권적권리와 발전리익을 고수하고 서로 강력히 지지성원하면서 힘을 합쳐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 국제적정의를 수호해나가 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시며 무력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임에 따라 그는 싸우는 로씨야군대와 인민에게 공화국정부와 무력,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가장 뜨거운 전투적경의와 지지성원을 보내였다.

이어 쉘레게이 쇼이구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로씨야인민의 마음을 담아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이한 전체 조선인민에게 진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였다.

연설자는 조국해방전쟁에 참전한 모든 로병들의 건강장수와 두 나라 인민들의 친선과 복리를 기원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다방면적인 협조를 시종일관 발전시켜나갈 로씨야련방의 용의를 피력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로씨야련방 대통령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에서는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을 환영하는 공연이 있었다.

연회석상에서 김정은동지께서는 쉘레게이 쇼이구동지를 비롯한 로씨야련방 군사대표단의 주요성원들과 따듯이 담소하시면서 동지적우의를 더욱 두터이 하시였다.

연회는 시종 화기애애하고 친선의 정이 차넘치는 속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을 찾으시고 려사들에게 송고한 경의를 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조용원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순남동지, 외무상 최신희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성남동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동지가 동행하였다.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이 중국인민지원군렬사탑에 진정되였다.

화환의 댕기에는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들은 영생할것이다》라는 글말이 써여져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는 우리

인민의 정의의 전쟁에 참전하여 소중한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릉원에 안치되어있는 모안영동지의 묘에 꽃송이를 진정하시고 경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동행한 간부들과 함께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들의 묘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반제반미투쟁을 영웅적인 희생으로 지지성원하며 전쟁승리에 중대한 공헌을 한 중국인민의 아들딸들의 송고한 넋과 정신은 사회주의리념과 더불어 영원불멸할 조종친선의 초석으로, 귀감으로 청사에 력력히 새겨져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은 자기의 존엄과 명예, 자주권을 보위하고 세계평화와 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정의의 전쟁이었으며 평화에 호력량과 진보적인류를 대표하여 제국주의지배세력에 맞서 싸운 첨예한 정치군사적대결이었다고 하시면서 조종 두 나라 인민이 피로써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세기를 넘어 오늘도 변함없이 거대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인민지원군 려사들의 고귀한 삶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할것이며 반제자주, 사회

주의위업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속에서 혈연의 뉴대를 맺고 정의와 진리의 힘으로 제국주

의자들의 반동적공세를 과감히 짓부셔나가는 조종 두 나라 인민의 단결의 력사와 전통은 후

세토록 굳건히 계승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 *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 대표단을 접견하시고 연회에 초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연회에 초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7월 28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인 리홍충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표단성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대표단성원들과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존경하는 습근평동지가 조중공동의 승리를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에 당 및 정부대표단을 파견해주고 훌륭한 축원이 담긴 친서를 보내준데 대하여 거듭 사의를 표시하면서 우리의 혁명전쟁을 괴로써 도와주고 우리 당과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변함없이 지지 성원해주고있는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전체 중국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조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군대와 한전호에서 희생적으로 싸우면서 견결한 반제혁명정신과 혁명적단결로써 승리를 이룩하는 훌륭한 전통을 마련한 중국인민지원군 장병들의 전투적위훈과 력사적공헌을 우리 인민은 영원히 기억하고 찬양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당과 정부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현대화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려정에서 세계가 팔목하는 성과들을 이룩하고있으며 또한 날로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높아가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형제적인 중국당과 인민이 습근평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중화민족

의 위대한 부흥의 꿈을 반드시 실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담화를 통하여 조중 두 나라가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면서 긴밀한 전략전술적협동을 통하여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해나가며 친선과 동지적협조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끊임없이 승화발전시켜나가는

두 당, 두 나라 정부의 립장이 재확인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대표단 성원들을 연회에 초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조용원동지, 최룡해동지와 당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동지, 오수용동지, 외무상 최선희동지, 당중앙위원회 부장 김성남동

지,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여정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뜻깊은 자리를 함께 하였다.

연회에서는 김여정동지와 리홍충동지의 연설이 있었다.

연회는 시종 따뜻한 동지적우의와 친선의 정이 차넘치는 화기에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였다.

* * *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뜻깊게 경축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은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주체조선의 더없이 귀중한 정신적재부로, 부국강병의 만년초석으로 길이 빛내여갈 인민의 일편단심을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맞이한 7월의 조국강산에 뜨겁게 분출되었다.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은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

며 이르는 곳마다에 경축의 꽃바다를 펼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태양상,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아 근로자들과 인민군장병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군중들은 제국주의강적을 쳐 물리치고 빛나는 전승을 안아오시였으며 반제반미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어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만방에 떨쳐 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가장 경건한 마음 안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절세위인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깃들어있는 교양거점들을 찾은 참관자들은 나라와 민

족의 운명을 두번다시 구원하시고 반제혁명전쟁승리의 기적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새겨안았다.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국가미술전람회장과 중앙사진전람회장을 돌아보면서 군중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앞당긴 가렬한 전투들과 절세위인들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70년이라는 세월을 굴함없이 싸워온 력사의 나날들을 감명깊은 화폭속에 다시금 되새기였다.

한편 이날에 즈음하여 각지에 있는 련사들의 동상과 련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련사묘들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화환진정에 참가한 각계층 인민들은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과 열렬한 조국애, 무비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조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영예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에 즈음하여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재중동포단체, 해외연교자가족, 재중동포들이 보내여온 꽃바구니의 일부



각계층 근로자들이 련사들의 동상과 련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련사묘들을 찾았다.



기념주화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왼쪽-금화, 오른쪽-은화)

롭게 수호하고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에 헌신한 열사들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전승세대를 존대하고 그들의 투쟁정신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길이 빛내여갈 일념 안고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전쟁로병들의 가정을 찾아 당의 은정속에 로

당익장하며 인생의 값높은 영광과 행복을 누려가는 혁명신배들을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수도 평양과 전국각지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있었다.

모란봉극장에서 열린 국립교향악단 음악회무대에는 관현악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바이올린협주곡 《결

전의 길로》, 교향곡 《내 고향의 정든 집》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음악회에서 출연자들은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이었던 조국해방전쟁에서 조국인민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고 영웅적인민으로 력사무대에 당당히 등장할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뜻깊게 경축하였다.



수 있는것은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군사적예지와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였음을 구가하였다.

수도와 지방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되어 명절분위기를 돋구었다. 세기와 세대를 이어 언제나

승리만을 떨쳐온 조국인민의 긍지와 자부심이 중앙과 지방의 여러곳에 펼쳐진 청년학생들과 녀맹원들의 무도회에서 분출되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뜻깊게 경축하며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 청년학생들

은 전승세대가 발휘한 승리전통과 영웅정신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국가발전의 새 지평을 향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갈 혁명적의지를 가다듬었다.

글 분사기자 변진혁
사진 조선중앙통신,
분사기자 김영호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장을 돌아보는 근로자들



수도의 밤하늘에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랐다.

사회주의문명의 밝은 미래를 펼쳐간다

-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심영학과 본사기자의 대담 -

얼마전 본사기자는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는 기념비적건축물들이 수많이 일떠서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조선건축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심영학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조국땅에는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많은 건축물들이 일떠서고있다. 그 모든 건축물들은 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첫자리에 놓고 건설되고있다.

심영학: 그렇다.

그것은 우리 건축이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 기때문이다.

건축의 창조자도 인민대중이고 그 향유자도 인민대중인것만큼 건설에서는 마땅히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 편의가 최우선시되어야 하며 인민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어야 하는것이다.

해마다 수도와 지방에 많은 건축물들이 일떠서



고있는데 이것은 자금이 남아돌아가고 조건이 용이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다.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과 국가가 구상하고 진척시키는 사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들이 쓰고살 살림집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신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인민들의 편의를 우선시하

는것은 도시건설의 핵이라고 하시면서 새 거리들의 살림집배치계획안과 조감도, 형성안들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셨다. 건축가들이 세계를 보는 눈을 띄우고 시야를 넓히며 수준을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요한 자료들을 내려보내주시기도 하시었다.

하기에 이 땅에 세워지는 건축물들은 착상으로부터 시작하여 설계와 시공, 마감처리에 이르기까지 다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첫자리에 놓고 건설되고있다.

기자: 도시와 지방건설에서 본보기가 창조되어 건축물들이 일떠서고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특색있고 비반복적이다.

심영학: 옳다. 지금 건설부문에서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부단히 새로운 전형, 본보기를 창조하고 그것을 불씨로 하여 온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고있다.

평양시와 함께 도소재지를 비롯한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을 지방의 특성에 맞게 꾸리는 사업들이 진행되고있다. 도시와 마을의 구획형성과 건축에서 민족성, 현대성, 실용성, 다양성, 조형에

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되고있다.

산간지역의 특성에 맞게 꾸려진 삼지연시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과 지방건설정책이 집중적으로 구현된 리상적인 본보기지방도시이다.

지방의 도시건설과 농촌경리, 경제발전, 인민생활향상의 본보기를 마련한 삼지연시건설은 시, 군을 거점으로 하여 지방인민들을 문명한 물질문화생활에로 도약시키기 위한 변혁의 출발점으로 되었다.

수도의 보통강강안지구에 근로대중을 위한 다락식주택구가 멋들어지게 솟아올라 전국의 비탈면, 산지들을 살림집건설에 효과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건축형식이 창조되고 수도와 지방도시들의 현대화, 문명화수준도 더욱 높일수 있게 되었다.

올해 4월에 화성지구가 현대도시의 표본구역으로 특색있게 일떠섰다. 송신, 송화지구보다 건설부지가 근 3배에 달하는 화성지구(1단계)의 건축물들만 놓고보아도 검색과 밤색, 회백색의 타일로 마감되어 은은하면서도 고전미가 안겨오게 완성된것이 특징이다.

화성거리의 고층살림집들은 도로와 평행되지 않고 립체감이 나게 배치되었으며 민족적형식의 건물과 현대건물들이 서로 잘 어울리게 형성되어 특색있는 거리로서의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고있다.

또한 매 건축물이 자기의 사명과 성격, 기능적요구와 주변환경에 맞게 공간구성이 다양하면서도 그 특성이 살아나게 완성되었다.

지형조건에 맞게 강류역의 특성을 살려 아름다운 산수풍경을 새 거리의 건축공간과 결합시킨것도 이채로운것이다.

건물들의 지붕구조시공에도 새롭고 독특한 건축장식수법이 도입되었다.

건축가들은 지난 시기의 창조방식과 달리 장식구조를 협소하게 조성하던 관례에서 벗어나 지붕장식을 건물전체와 잘 조화되도록 큼직큼직하게 형성하였다. 결과 거대한 꽃잎들이 펼쳐진 듯한 지붕과 우주를 관망하는 전망대처럼 보이는 건물지붕들이 형성되어 새 거리의 면모를 한

층 돋우고있다.

화성지구의 새 거리완공을 계기로 우리 건축은 또 한단계 도약하였다.

기자: 최근시기만 놓고보아도 시대를 대표하는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더 많이, 더 빠른 속도로 솟구쳐오르고있다.

심영학: 현대적인 새 거리들이 해마다 특색있게 솟아났다.

주체101(2012)년에 건축 및 거리형식의 모든 요소들을 완벽하게 갖춘 창전거리가 만수대지구에 단 1년만에 일떠서는 새로운 평양속도가 창조되었고 그 다음해에는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은하과학자거리가 형성되었다.

주체103(2014)년에는 위성과학자주택지구가 일떠섰고 주체104(2015)년에는 현대미와 조형미가 결합된 미래과학자거리가 대동강호안을 따라 건설되었다.

지금으로부터 6년전 대자연의 재난을 가시기 위한 사업들이 진척되는 속에서도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미래과학자거리의 두배가 훨씬 넘는 려명거리를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운 려명신화가 태어났다. 려명거리건설자들은 한 개 층의 골조시공시간을 36시간으로부터 12시간으로 단축하며 연건평이 12만여㎡나 되는 70층초고층살림집의 골조공사는 70여일만에, 외벽타일붙이기는 불과 10여일만에 끝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이후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진행되었는데 여기서 려명거리건설속도를 초월하는 새로운 평양속도, 건설신화를 또다시 창조하였다. 하여 도전과 장애가 그 어느때보다 혹심한 지금과 같은 조건에서 착공한지 1년도 못되는 기간에 송화거리를 세상에 보란듯이 일떠세우고 그 다음해에는 화성거리를 일떠세웠다.

정말 기적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수 없다. 지난 시기에도 그러하였지만 우리의 건축은 사회주의문명의 밝은 미래를 펼쳐며 끊임없이 전진비약할것이다.

기자: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어 감사하다.

* * *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는 조국

오늘 조국에서는 시대를 대표하는 기념비적 건축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최근년간에만도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련포온실농장,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대평지구 살림집, 농촌살림집들이 련이어 건설되어 건축의 비약적인 발전면모를 보여주었다.

오늘의 거창한 현실을 두고 조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이 펼친 건설의 대번영기라고 말하고 있다.

건설의 대번영기는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의 새시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1차 건설부문일군대강습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인 서한에서 주체의 사회주의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

민대중제일주의건축이라고 정식화하시였다. 이 정식화에는 건설에서 건축의 창조자, 향유자인 인민의 지향과 요구, 편의를 최우선시하고 그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게 사상예술성과 실용성을 완벽하게 보장할데 대한 사상이 담겨져있다.

조국땅위에 일떠서는 건축물들마다에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이러한 응지가 어려있다.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무엇을 하나 마련해주어도 최상의것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많은 건축형성안들을 지도해주시였다.

문수물놀이장형성안은 110여건, 미래과학자거리형성안은 590여건, 양덕온천문화휴양지형성안은 2 000여건, 삼지연시형성안은 1만 1 360여건에 달한다.

깊은 밤, 이른새벽, 눈비내리는 날에도 건설

장들을 찾고찾으시며 그이께서 밝혀주신 건설방향과 방도들은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게 한 지침이였다.

대동강반의 10만 9 000㎡에 달하는 부지에 일떠선 대규모의 종합적인 문수물놀이장만 보아도 그이의 숭고한 인민관이 응축되어있다.

인민들에게 안겨줄 창조물에 미흡한 점이 있을세라 물미끄럼대이음부의 미세한 편차도 포착하시고 바로잡도록 하시였으며 실내물놀이장에 해가림대도 설치해주도록 하신 그이의 지도속에 문수물놀이장이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일떠설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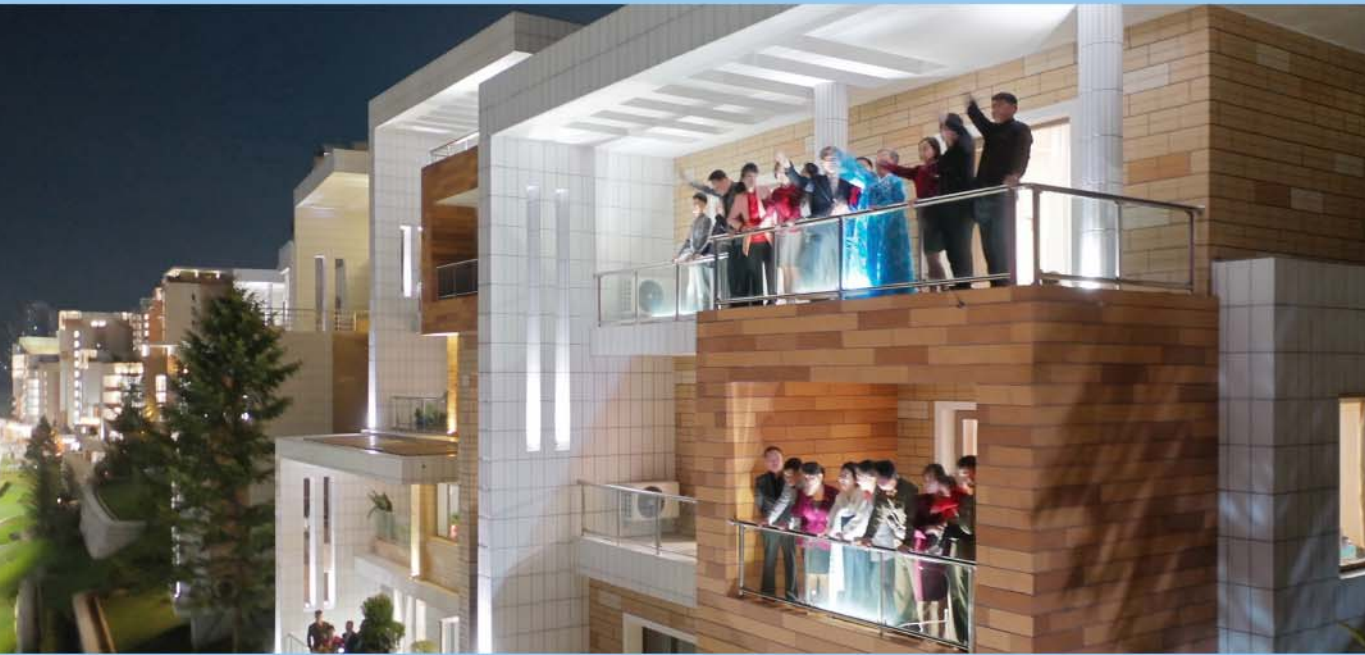
지난 10여년간 일떠선 수많은 건축물들중에는 평양의 문수지구에 꾸려진 병원촌도 있다. 세계선진수준의 안과종합병원을 인민들에게 안겨주려는것은 인민을 위하여 꼭 하고싶었던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 소원이 풀렸다고 기뻐하신 류경안과종합병원과 비에 옷자락을 적시시며 건설장을 찾으시였던 옥류아동병원을 비롯하여 그이의 사랑에 의해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 류경치과병원 등 현대적인 병원들이 집중된 병원촌이 생겨났다.

그뿐이 아니다.



평범한 근로자들이 송화거리의 주인이 되었다.
주체111(2022)년 4월 촬영





로력혁신자, 근로자들이 경주동의 호화살림집에 입사하였다. 주체111(2022)년 4월 촬영



수도에 또 하나의 새 살림집, 대평지구 살림집이 완공되었다. 주체112(2023)년 5월 촬영

릉라인민유원지의 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 류경원, 인민야외빙상장, 과학기술전당,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등 조국 땅위에 일떠선 모든 건축물들이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보장할수 있게 꾸러졌다.

건설은 시대가 도달한 정신적높이와 국력의 집

합체이며 문명과 발전에로의 큰걸음이다.

경에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그 첫자리에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놓으시였다. 력사적인 당 제8차대회에서 그이께서는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건설부문앞에 나서는 기본과업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기본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는것

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송신, 송화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을 무조건 끝내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고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사업부터 실속있게 추진하도록 지도하시였다. 살림집립면을 현대감이 나게 개변하고 기단층을 굽적굽적하게 련

결시키면서 건물들의 높낮이차를 줄데 대한 문제, 고가다리를 설치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그이께서 지도하여주시신 건축형성안은 1 000여건에 달하였다. 몸소 송신, 송화지구의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신 그이께서는 수도건설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기, 격변기를 상징하는 주되는 방향으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평범한 근로자들이 새 거리의 주인이 되었다. 주체112(2023)년 4월 촬영

양덕온천문화휴양지



문수지구의 병원촌

로 되도록 이끄시었다.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언제나 마음속에 안고계시는 그이이시기에 때로는 살림집건설착공식장들에 몸소 참석하시어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고 어떤 날에는 새 거리건설착공식의 첫삽도 뜨신것이다.

살림집문제해결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옴으로써 인민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지난 4월에는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이 완공되어 인민들이 보금자리를 뒀고 5월에는 대평지구에도 새 살림집이 일떠서 새집들이경사로 들썩이였다.

그런가 하면 삼지연시가 산간의 리상도시, 지방건설의 본보기로 꾸려진것을 비롯하여 최근년간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이 사회주의선경으로 변모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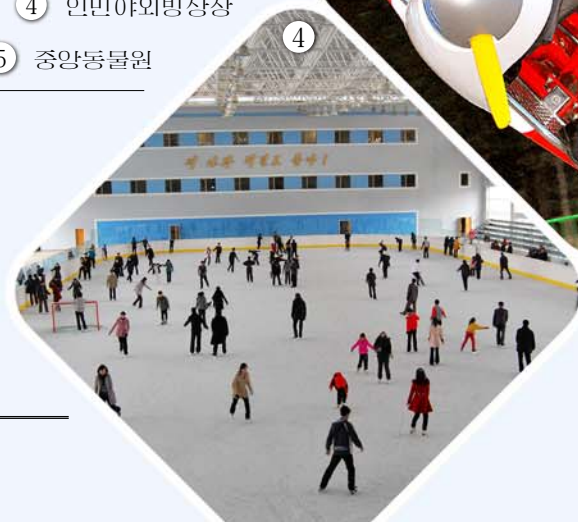
류레없는 격난이 겹쳐드는 속에서도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은 조선로동당만이 펼칠수 있는 력사의 화폭이다.

진정 위민헌신으로 인민대중제일주의건축

의 최전성기,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여 조국의 미래는 휘황하다는것을 지나온 10여년간의 새로운 건설력사가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 ① 양덕온천문화휴양지
- ② 문수물놀이장
- ③ 룡라인민유원지
- ④ 인민야외빙상장
- ⑤ 중앙동물원



련포온실농장



건설자 가정



경험을 나누고있는 아버지(왼쪽)와 아들(오른쪽)



로력영웅 김명철



김명철은 만수대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러명거리를 비롯한 수많은 살림집건설에 참가하였다.

주체112(2023)년 6월 촬영

조국에는 대를 이어오며 한부문에서 일하는 가정들이 많다. 그러한 가정들중에는 3대를 건설부문에서 일하고있는 서구공공건물건설사업소 직장장 김명철의 가정도 있다.

김명철은 어릴 때부터 건설자인 아버지에 대한 자랑이 남달랐다.

물론 다른 아이들처럼 명절날과 일요일이면 아버지의 손목을 잡고 유희장이나 동물원같은 곳에 다녀본적이 별로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일떠세운 새집들을 바라볼 때면 마음은 마냥 뿌듯해지곤 하였다고 한다. 그런것으로 하여 그는 그림을 그려도 기증기와 살림집그리기를 즐겨하였다.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는 건설자인 아버지에 대한 긍지가 한껏 자리잡았다.

사실 명철의 할아버지도 건설자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해방전 보잘것없는 품삯을 바라고 하루하루를 고된 로동으로 보내던 토목공이었다. 그러나 해방과 함께 운명의 전환을 맞이한 그의 할아버지는 인민을 위한 창조물들을 수없이 일떠세웠다.

나라를 위한 보람찬 일을 한다는 긍지를 안고 건설장들에서 땀을 흘리는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의 가슴속에 한생을 건설자로 살려는 결심을 간직하게 해주었다. 그렇게 되어 그의 아버지는 19살에 건설자가 되었다.

천리마대교조시기 수도의 2만세대 살림집건설에 참가한 그의 아버지는 그후 인민대학습당, 국

제친선전람관 등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는데 이바지하였다.

그 나날 그의 집에는 아버지가 중요대회들에 참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찍은 기념사진들이 모셔졌으며 그것은 어린시절 그의 자랑으로도 되었다.

차츰 철이 들면서 그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걸은 길에 자신을 세워보기 시작했다. 그들처럼 자기의 손으로 이 땅우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고싶었다.

그가 건설자가 된 날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

《건설자는 자기가 세운 창조물을 책임지고 담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건설자가 세우는 건축물이면 후날 조국의 모습으로 남기때문이다. 하나하나의 건축물에 너의 깨끗한 량심을 바쳐야 한다.》

그는 통일거리, 만수대거리, 은하과학자거리, 러명거리를 비롯한 수많은 건축물들에 자기의 땀을 아낌없이 물었다. 그 나날 건설에서 공사기일을 단축하는 수많은 창의고안들을 내놓았으며 발명도 하였다.

건설부문에서 공인되고있는 방사형트라스설치방법과 보조기중기에 의한 트라스조립공법은 그가 현실에서 착상하고 실천에 옮긴것이다. 특히 기존관례를 깨뜨린 보조기중기에 의한 트라스조립공법이 도입된 결과 많은 시간과 로력을 절약하였으며 공사기일도 단축하였다.

주체101(2012)년 10월 나라에서는 그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었으며 여러 국가행사들에도 불러주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호화주택으로 일떠선 경루동의 새집도 배정해주었다.

사업소에서 없어서는 안될 실력가로, 인정많은 직장장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김명철 직장장.

그는 자기를 풀어주고 키워준 조국을 아름답게 변모시킬 희망을 안고 할아버지가 걸어왔고 아버지가 이어온 그 길에 생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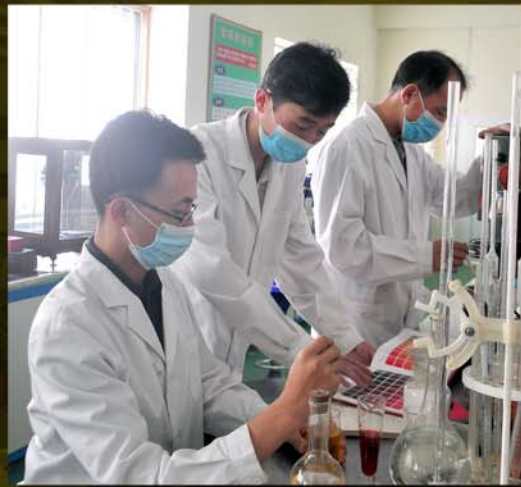
글 분사기자 엄향심
사진 분사기자 리영철



경루동 새집에서 안해와 함께

질 좋은 건축용 칠감을

- 평양정향건설공장에서 -



평양정향건설공장에서 건축용칠감을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지금으로부터 몇년전 공장에서 제품들의 국산화비중을 높이는 문제를 가지고 협의회가 진행되었다. 일부 일군들속에서 기술적문제를 해결하는것과 함께 경제적실리를 보장할수 있겠는가 하는 위구심으로부터 다른 단위에서 이미 거둔 성과들에 토대하여 사업을 전개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때 지배인 정룡수는 국내에 흔한 원료를 가지고 마감전재를 생산하는것, 바로 이것이 공장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공장에서는 먼저 전망이 있는 실리카계무기질칠감의 개발과 생산체계확립을 국산화의 돌파구로 정하고 칠감작업반에 힘을 집중하였다. 처음 해보는 일이라 원자재의 선택과 가공, 매 생산공정의 기술지표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생소하였다. 그리고 설비들도 새로 제작해야 하는 조건에서 개발, 도입과정은 많은 탐구와 노력을 요구하였다. 작업반에서는 칠감의 시험생산을 1년이상 계속하였으나 성공의 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공업시험실의 종업원들도 칠감들에 대한 실험수치를 측정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지혜를 합쳐갔다.

마침내 조국의 흔한 원료에 기초한 실리카계무기질칠감이 완성되었다.

이와 함께 공장에서는 평양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설물을 원료로 물유리를 만들어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자원화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

평양정향건설공장에서 칠감생산에 박차를 가하는것과 함께 제품의 질제고에 모를 박고있다.
주체112(2023)년 6월 촬영

였다. 이 물유리를 가지고 10여가지의 국산화된 칠감제품들과 방수제품들을 생산할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다.

새로 개발한 칠감은 종전에 비해 생산원가가 낮을뿐 아니라 기후견딜성과 내수성, 항균성 등 모든 지표들에서 국가 및 국제적인 품질기준에

도달하였거나 그를 능가하였다.

공장에서 만든 내장재와 외장재는 올해초 국내최우수제품들에 수여하는 12월15일품질메달을 받았다.

글 본사기자 김일봉
사진 본사기자 김광수



평양정향건설공장에서 생산된 칠감들의 일부



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칠감들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중앙운동원, 러명거리, 과학기술전당, 희천8호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부문 건설에 널리 리용되었다.

단합의 리념 아래

부대는 류하를 향해 행군을 다그치었다. 류하는 남만일대에서 흥경, 통화, 화전, 반석과 더불어 조선독립운동의 중요한 책원지의 하나로 널리 알려진 고장이다. 이 지방에는 구세대의 독립운동자들과 함께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새세대의 투사들도 많았다. 우리 나라 독립운동력사에서 첫 무관학교로 널리 소개되었던 신흥강습소도 남만의 류하현에 속한 하니하라는 곳에서 설립되었다.

우리가 류하를 행군로정의 하나의 목표로 정한것은 이 일대에서 반일인민유격대의 군중적지반을 넓히기 위한 정치공작을 본격적으로 벌이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류하뿐 아니라 삼원포, 고산자, 해룡, 몽강 등 안도까지의 귀환로정에 있는 지방들에서 군중을 혁명화하기 위한 작업과 함께 유격대의 대오를 확대하기 위한 활동을 맹렬하게 벌리려고 결심하였다. 남만으로 원정의 길을 택할 때 우리가 설정했던 전략의 한 측면도 여기에 있었다.

원정부대는 먼저 삼원포, 고산자, 류하, 해룡 등지에 머물러 혁명조직들과의 사업을 하였다.

9. 18사변후 이 일대의 혁명조직들은 적의 백색테로에 의해 혹심하게 파괴되었다.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여러해동안 피와 땀을 바쳐 꾸려놓은 조직들이 대부분 파괴되거나 해체되었다. 성원전원이 잡혀가거나 학살되어 도저히 재생할 수 없는 조직들도 있었다.

9. 18사변의 여과가 제일 심하게 미친 곳은 해룡지방이었다. 해룡에는 일본령사관이 있어 적들의 마수가 다른 고장보다 더 깊숙이 뻗어있었다. 조직선을 찾으려고 안타깝게 모대기는 사람들이 어느 고장에나 다 있었다.

나는 우리가 체류하는 모든 곳에서 첫 당조직을 모체로 확대된 기층당조직성원들과 공청,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 농민동맹, 반일부녀회, 소년탐험대의 책임자들을 만나 매개 조직들의 활동정형을 료해하고 당면한 혁명임무와 투쟁과업을 토의하였다. 그 과정에 이 지방 혁명조직성원들의 동향과 사고방식에서 스쳐지나서는 안될 몇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는것을 포착하게 되었다.

첫번째 문제점은 9. 18사변과 함께 급속히 만연되기 시작한 패배주의적경향이었다.

그런 경향은 우선 일본이 만주까지 먹었으니 이제는 만사가 다되었다고 생각하는데서 표현되었다. 일본은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제일 큰 로씨야도 타승하고 청나라도 격파하였다, 지금은 만주에 이어 중국본토까지 먹어보겠다고 혀를 날름거리고있다, 미국군대와 영국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는 알수 없지만 아마 일본군대한테는 견디지 못할것이다, 자칫하면 일본이 세계를 정복할수도 있겠는데 이런 판국에서 조선독립을 기다리는것은 부지하세월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청일, 로일 두 전쟁을 통해 생겨난 일본군에 대한 환상은 이무렵에 와서 더욱더 크게 조장되고 전파되었다.

조선민족자체의 힘으로 일체를 타승할수 있다고 말하는것은 지상공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이런 견해가 발전하면 싸워서 이기지도 못할바에야 혁명은 해서 무엇하겠느냐 하는 투항주의로까지 굴러떨어질수 있었다.

패배주의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인민을 묶어세울수도 없었고 광범한 애국력량을 혁명에 동원시킬수도 없었다.

우리는 부대내에서 정치실무적으로 준비된 대원들과 지휘관들을 선발하여 9. 18사변과 조선혁명의 전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군중들속에 들어가서 강연도 하고 해설담화도 하게 하였다.

대중이 제일 큰 관심을 가지고 청취하는것은 항일무장투쟁에 관한 소식이었다. 그들은 항일유격대의 규모와 전략전술적원칙에 대하여 특별한 호기심을 품고있었다. 류가분방인민들앞에서 하던 나의 연설이 또다시 재현되고 박수갈채가 터져올랐다.

우리의 강연이나 담화가운데서 가장 인기있는 화제거리는 안도—무송현경전투담이었다. 광대한 만주대륙을 일거에 집어삼키고 《만주국》까지 조작해낸 일본의 전승결과에 비한다면 1개 중대의 적을 소멸한 전과는 사실 대비조차 할수 없는 미미한것이였다. 그런데 군중은 이 전투담을 제일 흥미있게 경청하였다. 일본이 만주의 통치자로 군림할 때에 방금 첫발을 뗀 청소한 반일인민유격대가 백주에 로상에서 왜군 1개 중대를 섬멸하였다는 소식은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경탄시켰던것이다.

사람들은 전투과정의 매 세부, 지어는 아군의 돌격앞에서 저항을 포기하고 달아나던 순간의 적군의 구체적인 패주상까지도 죄다 알고싶어하였으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끝없는 질문을 들이대었다. 우리는 한장소에서 똑같은 전투세부를 두번, 세번 되풀이해서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는 안도—무송현경전투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반향을 종합하면서 대중에게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수 있다는 신심을 주자면 말보다도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며 실전을

통하여 유격대의 위력을 보여주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 다시한번 확신할수 있게 되었다.

군중의 동향에서 제기되는 다른 하나의 문제점은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배경으로 하여 적지 않은 청년들속에서 무장투쟁을 절대시하고 지하혁명활동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것이였다. 그들은 적이 땅크와 대포와 비행기를 가지고 막 짓밟개대는 때에 밤낮 모여앉아서 회의나 하고 말공부나 하고 뼈라나 뿌리면 뭘하는가, 총을 들고 일어나 왜놈들을 한놈이라도 잡아 제껴야 소득이 있지 지하활동 같은것이나 해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조직생활을 경시하고있었다.

그들은 무장투쟁도 조직생활을 통해 육성된 핵심들에 의해 수행되며 조직이라는 거대한 저수지가 없이는 무장대오도 조직할수 없고 더우기는 그 대렬을 늘어나가는것도 불가능하다는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것도 역시 9. 18사변이 만들어놓은 좌익소아병적인 후유증이라고 할수 있었다.

항일유격대의 저수지가 조직이고 조직을 떠난 혁명투쟁이란 론할수도 없고 성립될수도 없으며 조직들이 활동하지 않으면 혁명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생명이 끝장난다는 리치를 대중에게 인식시키는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였다. 우리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이 만주각지에서 반일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무력에 의한 항전을 개시할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지난 기간 혁명군중이 조직활동을 잘해온 덕택이라는것을 설득력있게 해설해주었다.

(다음호에 계속)

부강조국건설의 만년도대를 마련하시여

조국인민들은 시련의 광풍이 불어칠수록 더욱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자기가 선택한 사회주의한길로 보무당당히 나아가고있다.

돌이켜보면 해방후 경제건설경험도 밀천도 없이 새 조국을 건설해야 하는 것처럼 어려운 속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신분은 바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후 새 사회건설의 첫 시기에 벌써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내놓으시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령도하여오시는 전기 간 남의 힘이 아니라 자립적경제토대의 위력으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오시였다.

어느 하루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나라의 곳곳을 찾으시는 그이의 헌신에 의해 일제가 조선사람의 힘으로 돌릴수 없을것이라며 파괴해놓고 달아난 그 자리들에 새 공장들이 일떠서 자립경제의 동음이 울리기 시작하였다.

미국이 도발한 조선전쟁으로 모든것이 파괴되었을 때에도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신 그이께서는 전화의 불길속에서 과학원(당시)을 창설하도록 하시였으며 전선의 군인들을 대학으로 소환하시였다.

그이의 령도에 의해 조국은 수정주의자들이 《통합경제》를 운운하던 시기에도 주체의 경제건설방식을 철저히 고수하였으며 남들이 몇백년이 걸려서야 이룩한 모든것을 짧은 력사적기간에 달성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 기적의 나라로 솟구쳐오를수 있었다.

조국이 나라의 경제를 자그마한 침체나 담보도 없이 자기의 자원과 기술,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발전시켜나가고있는것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자립적민족경제가 강국건설의 초석으로 만대에 빛을 뿌리게 하시려는것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의지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모든 문제를 나라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심으로써 령도도 크지 않고 인구수도 많지 않은 조국을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압력과 제재에도 흔들리지 않고 세계적인 대정치풍파에도 끄떡없이 자기 발전의 불변궤도를 따라 나가도록 하시였다.

나라가 준엄한 시련을 겪어온 지난 세기 90년대중엽 고난의 행군시기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선군시대의 경제건설로선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제시하신 사상리론들은 실천에서 거대한 생명력을 발휘하였다.

그이의 령도에 의해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의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져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혁명적대고조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오르고 자립경제, 지식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다져졌다. 이러한 속에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CNC화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었으며 대규모토지정리가 진행되어 울망줄망한 폐기논들이 규격포전으로 정리되는 등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귀중한 밀천들이 마련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즐기치게 이끌어가고계신다.

그이께서는 경제발전을 떠미는 주되는 동력은 발전된 다른 나라의 자본이나 기술이 아니라 남보다 앞서나가려는 인민의 정신력과 창조력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지니시고 단 한치의 편차도 없이 자립경제건설을 이끄시였다.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을 번영의 보검으로 내세우고 자립경제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며 자체의 과학기술력량에 의거하는 발전방식은 그이께서 있어서 경제적자립을 이룩하여 자주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한 최선의 방도로 되였다.

그이의 위민헌신에 의해 건설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의 새 력사가 수놓아지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인민경

조국해방을 위한 3대로선을 제시하시여

력사적인 조국해방의 날(1945. 8. 15.)을 맞으며 조국인민은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뜨겁게 되새겨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29(1940)년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소할바령회의에서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여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잘할데 대한 전략적과업을 제시하시면서 대부대작전으로부터 소부대작전으로 이행할데 대한 새로운 투쟁방침을 밝히시였다.

력사적인 소할바령회의를 계기로 항일무장투쟁은 새로운 전략단계에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조국해방의 대사변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속에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2(1943)년 1월상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조국해방을 위한 3대로선을 제시하시였다. 조국해방 3대로선은 조선인민혁명군의 총공격과 그에 배합한 전인민적봉기, 인민혁명군 소부대와 무장

봉기조직들의 배후련합작전을 벌릴데 대한 대일최종작전방향이었다.

그리고 이해 2월 신흥지구 비밀근거지의 두무봉밀영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 소부대, 소조 및 혁명조직책임자회의에서 이미 확정한 조국해방3대로선을 다시금 천명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전국의 무장봉기조직들과 인민들은 《김일성장군님께서 거느리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진격에 대중적무장폭동으로 합세하자!》라는 구호밑에 적극적인 무장봉기태세를 갖추었다. 전민항쟁조직을 내오기 위한 투쟁은 일제침략군에 강제징집된 조선청년들과 일본본토에서도 벌어져 대학생들과 탄광로동자, 징용로무자들에 이르기까지 조선사람이 살고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 혁명조직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주체31(1942)년에 일제에게 로출된 국내의 반일지하조직만 해도 180여개나 되고 조직적력량이 50만명이 넘었다는 이 수자는 전민항쟁세력이 얼마나 급

속히 장성하였는가를 보여준다.

이러한 준비를 갖춘데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34(1945)년 8월 9일 조선인민혁명군 전부대에 일제를 격멸하기 위한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시였다. 그이의 최후공격명령을 받들고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일제침략군을 격멸소탕하며 노도와 같이 조국에로 진군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드센 공격에 의하여 일제침략군은 최후공격작전이 시작된지 1주일만인 8월 15일 황급히 무조건항복을 선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장기간에 걸쳐 항일무장투쟁을 벌려온 우리 민족은 일제의 군사적강점통치체계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드디어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게 되었다.

그때로부터 7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민족해방투쟁의 세계사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업적은 세기를 이어 더욱 빛나고있다.

본사기자 김영은

제의 주체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고 도처에 현대적인 공장들이 일떠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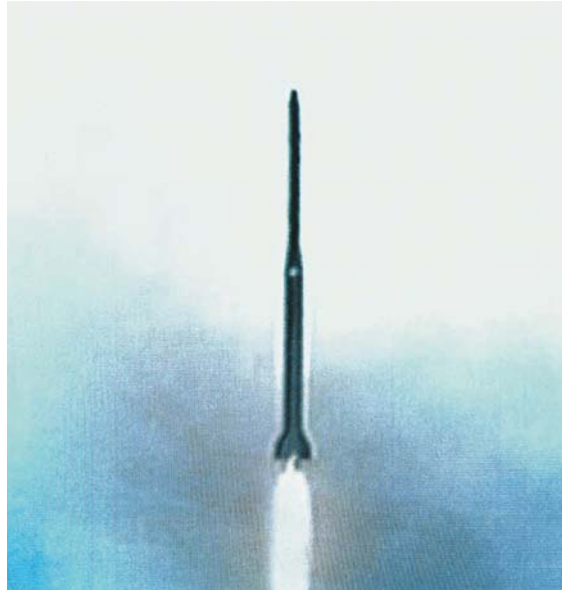
조국에서 10년을 1년으로 주름잡는 기적이 일어나고 마식령속도, 러명신화와 같은 새로운 비약의 진군속도가 창조되었으며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 국가경제전반을 안정적이며 발전적인 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이 박력있게 진척되

고있는 이 모든 현실은 그이의 탁월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물려주신 만년재보가 있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가 있기에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목표는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것은 오늘 조국인민들이 더욱 굳게 간직하고있는 신념이다.

본사기자 연옥

인공지구의 성모우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시여



《광명성-1》호 발사 주체87(1998)년 8월



《광명성-2》호 발사 주체98(2009)년 4월

주체87(1998)년 8월 31일은 조국이 첫 인공 지구위성을 쏘올린 날이다.

당시 공화국기와 《조선》이라는 글자가 동체에 새겨진 운반로켓에 실려 솟아오르는 《광명성-1》호의 모습은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막대한 자금지출과 지어는 실패도 각오해야 하는 우주개척의 길은 바란다고 하여 누구나다 갈수 있는 길이 아니다.

하지만 존엄높은 강국의 지위에 올라서자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였기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우주개척의 대용단을 내리시었다.

그이께서는 우주기술이 사회경제발전에서 노는 역할을 꿰뚫어보시고 일찌기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분야를 개척하도록 하시었다.

그이의 령도에 의해 조국에는 우주기술개발력량과 연구기지들이 꾸려지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조국은 인공지구위성을 운반할수 있는 다계단로켓을 개발하고 금속재료공업과 기계공업, 연료제조기술, 우주통신기술 등을 소유할수 있게 되었다.

조국을 세계적인 우주강국의 전렬에 내세우실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98(2009)년 4월 몸소 시험통신위성인 《광명성-2》호의 발사과정을 관찰하시였으며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분야에서 새로운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과학기술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발사하여 조국을 실용위성을 소유한 우주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도록 하시었다.

실용위성들을 제작, 발사하는것은 조국을 위성제작 및 발사국, 나아가서 우주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당시 조국은 두차례에 걸쳐 시험위성발사를 성과적

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들을 개발하고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여왔다. 이 과정에 나라의 우주과학기술분야에서 비약적인 전진이 이룩되고 실용위성들의 발사와 정상운명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었다.

마침내 주체101(2012)년 12월 12일 첫 실용위성인 과학기술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성공이라는 민족사적사변이 일어났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통신위성을 비롯한 여러가지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개발발사할데 대한 우주정복의 보다 높은 목표를 제시하시었다. 하여 조국은 주체102(201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을 채택하고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새로 건설하고 서해위성발사장을 현대화하여 나라의 우주개발산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울수 있는 든든한 도약대를 마련하도록 하신분

도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이시다.

그이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위성관제종합지휘소가 일떠서고 서해위성발사장이 새롭게 변모되었으며 실용위성의 설계와 제작, 위성관제설비개발을 비롯한 나라의 우주개발산업에서 전진이 이룩되게 되었다.

우주강국건설을 위한 그이의 령도는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에도 깃들여있다. 그이께서는 한겨울의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서해위성발사장을 여러 차례 찾으시여 위성발사준비와 운반로켓의 수직화사업을 지도해주시었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대성공으로 하여 조국은 우주강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보고에서 우주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실용위성들을 더 많이 제작, 발사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그리고 정지위성을 비롯한 더 발전된 위성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그후 정지위성운반로켓용 대출력발동기시험분출시험에서 성공함으로써 국가우주개발 5개년계획기간에 정지위성운반로켓을 개발완성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었으며 정지위성을 비롯한 각종 위성들을 발사할수 있는 전망이 열리게 되었다.

짧은 기간에 단 몇차례의 위성발사를 통하여 시험위성으로부터 지구관측위성으로의 급속한 발전, 더우기 인공지구위성의 설계로부터 제작과 조립, 발사와 발사후관측에 이르는 모든것을 100% 국산화한것은 조국이 우주강국건설에서 이룩한 기적중의 기적이다.

정녕 조국이 이룩한 이 존엄높고 긍지높은 현실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다. 조국은 앞으로 임의의 시간에 위성들을 쏘올릴것이다.

본사기자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주체101(2012)년 12월

산골군의 고려약공장에서 명약품들을



내 조국의 무진장한 약초자원을 리용하여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고려 약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겠다.

평안남도 신양군영예군인고려약공장 지배인

평안남도 신양군영예군인고려약공장은 종업원이 불과 몇십명밖에 안되는 산골군의 자그마한 고려약생산기지이다. 하지만 최근시기 공장은 군에 없어서는 안될 보배공장으로, 고려약생산부문에서는 전국적인 본보기단위로 손꼽히고있다. 특히 공장은 인기있는 명약품들을 많이 개발생산함으로써 전국에 크게 소문을 내고있다.

지난 기간 이곳 종업원들은 자기 공장을 앞선 단위 못지 않게 추켜세울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꾸준히 하면서도 줄기차게 벌려왔다.

그 나날에 그들은 성실한 땀을 바쳐 산들에 약초자원을 조성하였고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도 현대 과학기술을 습득해가며



평안남도 신양군영예군인고려약공장에서 생산한 약품들의 일부

자체의 힘으로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갱신하였다. 그리고 의약품생산 및 품질관리기준인 GMP화하는것과 함께 약품의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상표도 특색있게 완성하였다.

주목되는것은 공장의 인재력량이 그뿐한것이다. 공장에서는 이에 토대하여 약품의 질개선과 새 약품개발을 경영활동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나갔다.

그들의 노력으로 하여 령신환, 룽미환, 삼향우황청심환은 물론 새롭게 생산하는 것 풀무좁물약, 박하인후알약, 령묘향구심환, 자귀잎찜팡이심장알약을 비롯한 적지 않은 고려약들의 효능이 비할바없이 높아졌다.

공장에서는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전반적인 생산공정 및 경영활동의 최량화, 최적화를 위한 기술갱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명약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그 대표적인 고려약이 인삼황경피당뇨병 교감약이다.

공장에서는 이밖에도 따두릅관절염물약, 정향진정가루약, 박하건위링크를 비롯한 효능이 높은 약품들을 개발생산하고있다.

지금 공장에서 생산되는 고려약들은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있다.

글 본사기자 강은순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공장에서는 약품의 질개선과 새 약품 개발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대중체육열기가 우승 안아온 우승

-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 -

해마다 진행되는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는 전문선수들이 참가하는 체육경기들 못지 않게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진행된 제10차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도 그러했다.

특히 평양의학대학병원과 김만유병원과의 바줄당기기결승 경기는 시작부터 불만하였다.

한것은 이 팀들이 지난 시기 바줄당기기경기에서 1, 2등을 겨루던 강팀들이어서 경기가 매우 치열하게 벌어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양의학대학병원은 이 바줄당기기경기에서 또다시 우승하여 3연승을 기록하였으며 태권도 등의 다른 종목경기들에서도 1등을 쟁취함으로써 조에서 종합 1위를 하였다.

주체 105(2016)년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종합 1등을 한 소식은 온 병원을 들끓게 하였다. 경기대회가 끝난 후 병원

의료일군들의 손전화기로는 축하인사가 그칠줄 몰랐다.

이번 경기대회를 주최한 보건성 일군들은 어느 병원이나 할것없이 이기려는 승벽심이 이만저만 아니지만 평양의학대학병원 책임일군들만큼 체육사업에 관심을 돌리고 조건을 잘 보장해주는 단위는 없을것이라고 하였다.

경기대회에 참가한 평양의학대학병원 부원 김성도는 경기장에 나선것은 선수들뿐이 아니었다고, 병원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물론 가족들까지 모두가 한마음한뜻이 되어 경기장을

달리었고 우승의 시상대에도 마음속으로 함께 올랐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하여 이번에 거둔 성과는 병원에 차넘치는 드높은 대중체육열기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는것이였다.

병원에서는 정상적으로 대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려 종업원들의 대중체육열기를 한껏 북돋아주고있다.

일군들부터가 체육을 좋아하고 여러가지 체육기술을 소유하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있으며 모든 종업원들이 대중체육을 자기자신을 위한 사업으로 여기고 진행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치료사업의 여가시간마다 파별로 배구, 정구, 탁구를 비롯한 구기종목경기를 진행하고있다.

점심시간 혹은 하루사업이 끝난 후 진행되는 경기들은 참으로 이채롭다.

그들중에는 새로운 치료방법과 치료기구를 도입하여 많은 환자들을 소생시킨 권위있는 학

위학직소유자들도 있고 《우리 의사선생님》, 《정성의 꽃》으로 정답게 불리우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의사들도 있다.

구기종목만이 아니다.

민족의 정통무도인 태권도에 매혹되어 째짤이 태권도기초기술을 터득하는 의사들도 있다.

척추 및 어린이행동발달장애 치료연구소 의사 백태옥은 룡구

면 룡구, 정구면 정구 등 못하는 체육종목이 없을 정도로 다방면적인 체육애호가이다. 그는 태권도에 마음이 끌려 병원의 태권도선수들을 찾아가 수련받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여러 틀동작을 손색없이 수행할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번 경기대회 태권도종목에 참가한 그였다.



평양의학대학병원에서는 탁구와 룡구, 배구 등 대중체육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주체 112(2023)년 4월 촬영

이외에도 구급과 간호원 김정미를 비롯한 간호원들도 원격 교육체계에 망라되어 공부를 하면서도 다양한 체육기술을 소유하느라 많은 품을 들이고있다. 렌트겐의학강좌 교원 정유일도 대중체육활동을 통하여 바늘당기기기술을 연마하였으며 지휘자로서의 무시할수 없는 실력을 쌓았다.

주체107(2018)년부터 보건 부문 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하고 전국도대항군중체육대회에도 출전한적 있는 정형외과연구실 실장 김주남은 이렇게 말하였다. 《대중체육활동은 참으로 좋다. 체육기술을 연마하여 건강한 체력으로 자신을 단련시키는 데도 있지만 보다는 집단이 하

나로 단합되고 그 단합된 힘으로 치료사업을 더 잘해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실지 병원에 차넘치는 대중체육열기는 치료사업에서의 성과에로 이어지고있다. 최근에도 병원에서는 최종중환자들을 소생시킨것은 물론 가치있는 치료방법들과 의료기구들을 개발도입하여 여러 전시회

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중체육활동에서도 치료사업에서도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이들의 결심은 확고하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임정국



올해 진행된 제10차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에서 평양의학대학병원은 종합1등을 쟁취하고 축기를 받았다.

평양의학대학병원 종업원들이 제10차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진행한 경기의 일부 장면들



제10차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 개막식

청년과학자집단 전도양양한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공학부 정보측정공학 연구소의 자동화계기연구실이 발족된지는 불과 몇년밖에 안된다. 이런것으로 하여 연구실의 대다수 성원들이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30대의 청년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팔목할만한 과학연구성과들을 련이어 내놓고있다.

이들은 지난해 준공한 김화군식료공장의 통합 자동화체계를 맡아 손색없이 구축하여 지방공업공장의 새로운 표준, 본보기를 창조하는데 기여하였다.

당시 김화군식료공장의 매 생산공정들은 발전하는 시대적요구에 맞게 새롭게 세우는 공정들인것으로 하여 통합자동화체계를 구축하자면 일련의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여야 하였다.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하게 제기된 문제는 통합자동화체계를 구축하는데서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완전히 새롭게 작성하는것이였다.

그들은 전반적생산공정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프로그램작성에서 관건적의의를 가지는 해당한 기술지표들을 찾아내기 위해 서

로의 지혜를 합쳐나갔다. 한편 각이한 장치들에 대한 연구도 혁신적인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각도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마음도 행동도 하나가 되어 지방공업공장의 새로운 기준을 창조하기 위한 그들의 연구는 날이 갈에 따라 더욱 심화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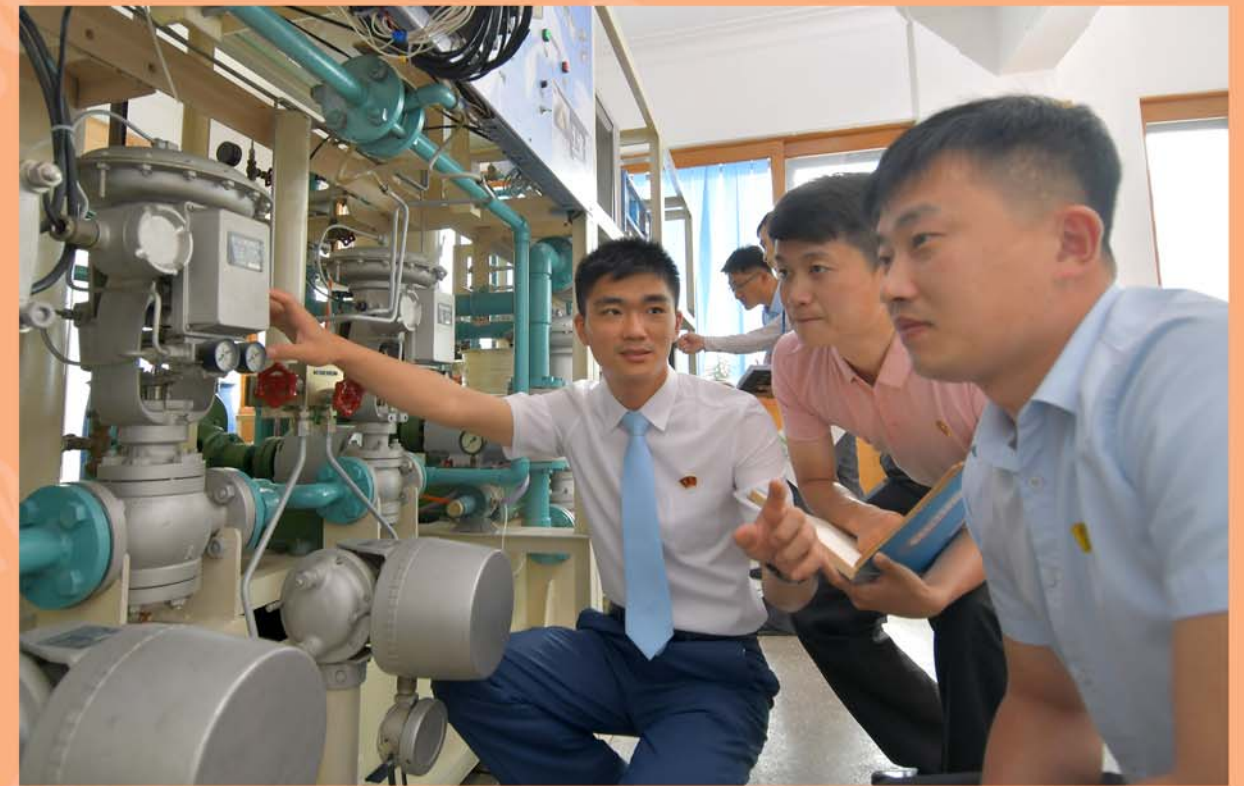
이 나날 연구사들속에서 기존공식을 타파한 혁신적인 안들이 제기되었으며 결과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게 되였다.

연구를 시작하여 한달만에 가장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한 그들은 국내의 자재를 리용하여 필요한 장치들도 개발함으로써 마침내 지방식료공장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통합자동화체계를 구축할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현재 통합자동화체계가 구축된 김화군식료공장은 전반적생산공정의 자동화, 흐름선화가 실현되어 많은 로력과 자금을 절약하면서도 품질이 담보된 갖가지 식료품들을 생산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 최근에만도 천리마타일공장,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 등 조국의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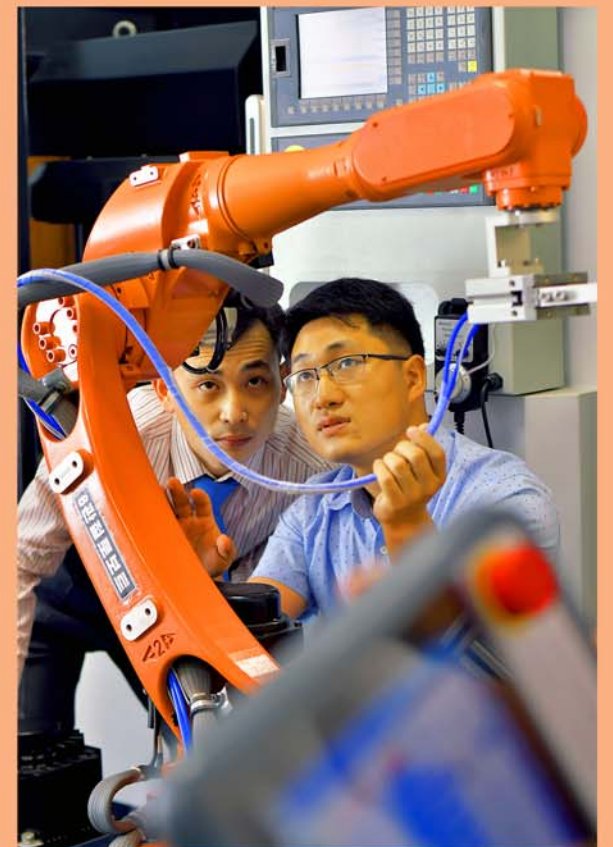
러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사업에서 제기되는 많은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되였다. 특히 만경대혁명사적지기념품공장에 구축된 통합자동화체계는 선진적인것으로 하여 통합자동화체계개발분야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성과로 높이 평가되였다.

리정우실장은 《과학과 기술의 시대인 오늘날 국력경쟁은 과학기술경쟁이며 부강조국의 미래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분발하여나서는가 하는데 달려있다.》라고 말하였다.

얼마전 리정우실장은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수여받았으며 여러 연구사들이 학위소유자로 되었다.

글 본사기자 김지성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과학연구에 집체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우)
로보트연구에 정열을 바치는 청년과학자들(아래)



회령오지

조선봉건왕조시기부터 널리 알려진 회령오지는 일반오지와 다른 특징이 있다.

회령오지에 음식이나 음료를 담으면 일반오지에 비해 오래도록 변질도 안된다고 한다.

하기에 오래전부터 조국인민들은 회령오지를 식생활문화에 널리 리용하여왔다.

오늘 회령오지공장에서는 전통적인 자기제조기술에 현대과학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형태의 독, 항아리, 자배기, 뚝배기, 옹배기, 단지 등 여러가지 질 좋은 오지제품을 생산하고있다.

민족의 향취가 짙은 회령오지제품들은 인민들속에서 그 수요가 높다.



회령오지의 일부

중국 길림성 연길시 신흥가 방인철외삼촌 앞

새집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외삼촌과 외삼촌어머니,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늘 어머니에게서 외삼촌과 외삼촌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서인지 뉘는적은 없어도 날과 달이 흐를수록 보고싶어 만집니다.

더우기 동생 춘영이가 친척방문과 사업상으로 중국에 갔을 때에도 제일먼저 나의 소식부터 묻곤 하셨다니 비록 멀리 있어도 저를 생각하는 외삼촌과 외삼촌어머니의 웅심깊은 마음이 가슴에 와닿는것만 같습니다.

외삼촌과 외삼촌어머니, 최근년간 우리 가정에는 경사가 났습니다.

지난해 4월에 우리 가정은 멋쟁이거리로 일떠선 송화거리에 입사하였습니다.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받고 새집들이하던 날 우리들은 너무 꿈만같아 온밤 잠을 이룰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꿈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외삼촌과 외삼촌어머니도 지금 세계적으로 제 집마련에 얼마만한 품이 들고있는지 아시지 않습니다. 또 집이 없어 방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알고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국에서는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해 새 거리를 일떠세우고 무상으로 집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있었다면 관현악단에서 배우들의 연주기량을 높일수 있게 도와주고 이끌어준 것밖에 없는데 나라에서는 그것을 높이 평가해 준것이였습니다.

외삼촌, 새집들이를 하는 날 춘영이랑, 예영이랑 다 와서 집구경을 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인민군대에 나간 철우와 현우네 부대에서도 축하편지들이 날아와 기쁨을 더해주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사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군대에 나간 현우는 조선인민군창건 75돐 경축 열병식을 비롯하여 여러 열병식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까지 찍는 영광을 지니였습니다.

정말 날에날마다 집에 경사가 겹치고 행복이 커갈수록 나라의 고마움에 보답할 마음이 더해지는 우리들입니다.

춘영이와 예영이도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찾아하고있으며 자식교양도 잘하고있습니다.

참, 제 소식만 전했구만요.

춘영이는 통일거리에 있는 사진관에서 일하고있는데 인민들에게서 호평이 대단합니다. 특히 애기들과 장난이 세찬 어린이들의 사진을 잘 찍어 인기를 끌고있습니다.

진희아버지도 춘영이의 일을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외삼촌, 글보다 마음이 앞서다나니 두서없이 썼습니다.

평양에서 한번 만납시다. 저의 집은 송화거리 80층초고층살림집의 옆에 있어 찾기도 쉽습니다.

외삼촌과 외삼촌어머니가 오시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주의를 돌려주십시오.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1동 29인민반 김주영조카로부터



국가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연구사 박사 부교수 조일연

수리공학분야에 바쳐온 40여년

일본에서 살던 조일연은 조국의 품에 안겨 수리공학연구소가 될 꿈을 실현하였다.

나라에서는 그를 국가적인 대회들에도 불러주고 새 살림집들이 일떠설 때마다 배정해주었다.

지난해 4월 국가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 실장 박사 부교수 조일연과 그의 가정에 뜻밖의 경사가 났다. 호화주택으로 일떠선 경루동의 새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던 것이다.

온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희한한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편 그의 심중에 과연 무엇이 차 있었는지.

그는 이날 자기의 지나온 나날을 새삼스레 돌이켜보았다고 한다.

주체70(1981)년 리과대학을 졸업한 그는 국가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에 배치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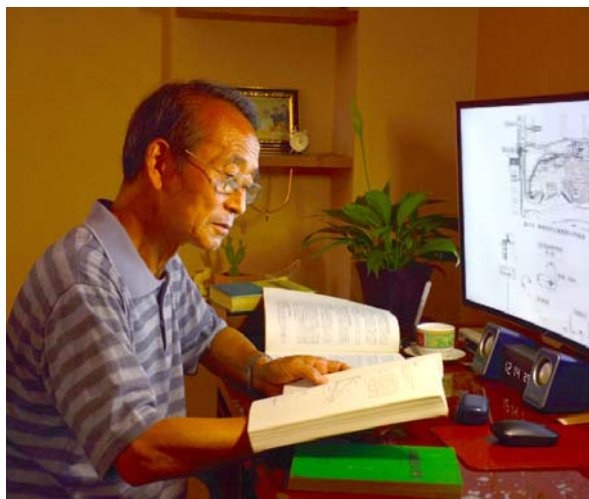
조국에서 큰 발전소들중의 하나인 수풍발전소에서 연구사업의 첫시작을 뻬 그는 선배연구원들과 함께 전력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였다.

이 과정에 그는 저수지들의 운영을 보다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러해동안 계속된 연구끝에 그는 다년조절, 계절조절능력의 저수지들에서의 수위를 시기별로 가르고 어느 수위에서 운영해야 전력손실을 줄이면서도 최대한의 실리를 얻게 되는가를 해명한 저수지운영도를 만들었다.

뿐만아니라 발전소들의 락차와 출력에 따라 기대를 운전할수 있는 고효률운전표도 작성하였다. 이것은 수력발전소들에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탐구의 열정을 바쳐가고있는 조일연



수 있게 하는것으로 하여 전력생산자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전국의 발전소들에 도입되었다.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는 국가전력계통에 망라된 대규모수력발전소저수지들의 통합적인 물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밀고나갔다.

애로가 많았지만 그는 언제 한번 힘들다는 말을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의 안해 리민애는 《세대주는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에 올 때부터 수리공학연구소가 될 꿈을 안고있었습니다. 조국에서 우리 세대주의 꿈을 꽃피워주었습니다. 세대주는 늘 자기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있었습니다. 그 긍지가 모든 곤난을 이겨내게 해주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조일연박사는 40여년간 나라의 전력증산에 이바지하는 큼직큼직한 연구성과들을 내놓았다.

그는 희천발전소의 통합적인 물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여 2. 16과학기술상수상자로 되었으며 수리공학부문의 쟁쟁한 박사, 석사들도 적지 않게 키워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그의 삶을 값높이 내세워

주었다. 국가적인 대회들에도 불러주었고 새 살림집들이 일떠설 때마다 그에게 배정해주었다.

몇년전 조국을 방문하였던 그의 외삼촌은 성공한 그의 삶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고 한다.

《지금 살아계시면 90살을 넘겼을 외삼촌이 우리 집에 와보면 아마 깜짝 놀랄것입니다.》라고 조일연은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사로 일하는 아들도 려명거리의 새집에서 산다고 기쁨에 겨워 말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 실장사업을 젊은 사람에게 인계해주었지만 여전히 그는 젊은 시절의 그 기백으로 수리공학부문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해나가고있다.

그가 연구실의 신인연구사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자기들이 찍어가는 자욱이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어머니조국은 모든것을 다 기억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김슬기
사진 본사기자 리 철

조일연과 그의 가족들



로세대 동포들은 애국의 뿌리이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의 일군들은 명절이나 기념 일을 계기로 자주 나이많은 동포들의 집을 방문하곤 한다.

얼마전 동주봉사무국장과 김영희국장, 권현 료녕지구협회 회장은 심양시 화평구 서탑에서 살고 있는 리옥자동포의 집을 방문하였다.

고령의 나이인 리옥자동포는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흘러간 옛시절을 추억하였다.

리옥자동포는 심양시 서탑조선족소학교에서 교원으로 활동하였다.

동포자녀들에게 조선어를 배워주는 그 바쁜 속에서도 리옥자동포는 심양시동포들의 생활을 성심성의껏 돌봐주었다.

그 나날 그는 심양시동포애국사업을 맡아하는 책임일군으로도 일하였다.

성격이 날카롭고 애국심이 강하면서도 동포들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그를 누구나 다 좋아하였다.

하여 그는 공화국창건 30돐때에는 재중조선인 축하단의 한 성원이 되어 조국을 방문하였다. 축하단의 부단장이었던 그는 꿈결에도 뵈고싶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회의에 참가하고 연회에도 참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를 두고 전해갈 선물을 받아안았으며 보고 싶었던 일가친척도 만나보고 조국의 명승지를 유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70돐때에도 리옥자동포는 뜻을 영광과 배려를 받아안았다.

그는 90살이 넘은 년로한 몸에도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새세대 동포들의 모범이 되어 일하고있다.

리옥자동포와 같은 로세대동포들은 애국의 한 길에서 그 어떤 명예도 보수도 바라지 않고 묵묵히 자기를 바쳐가고있는 뿌리들이다.

본사기자



동포들의 집을 방문하고있는 재중조선인 총련합회의 일군들

조선의 단청

기둥무늬

기둥무늬는 기둥의 머리부분에 장식하는 무늬로서 모루무늬와 류사하다.

그러나 기둥의 구조적특성에 맞게 무늬들이 개성적성격을 가진다.

기둥에 입혀지는 무늬라는 뜻에서 《주의초》라고도 한다.

기둥무늬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형식과 무늬소재에 따라 매화점무늬, 피면무늬, 금무늬 등이 있다.

기둥무늬는 기둥을 아름답게 장식하면서도 지지적표현성을 강조하며 지나치게 높은 기둥에 변화를 주어 기둥장식의 지루한감을 없애고 장식적인 세련성을 더해준다.

글 본사기자 김성영
사진 본사기자 리영철



성불사 극락전의 기둥무늬



안악월정사 만세루
기둥무늬



연탄심원사 보광전
기둥무늬



지혜사 대웅전의 기둥무늬



은하수에 비낀 견우직녀전설

며칠전 문득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저의 입가에서는 저도모르게 《야》하는 탄성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금모래, 은모래를 뿌린듯한 별의 세계가 가슴을 유난히도 설레이게 하였던것입니다.

저는 이런 날에는 은하수를 볼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하며 드넓은 밤하늘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북쪽하늘가에서 남쪽으로 강물처럼 길게 늘어져 은빛을 뿌리는 은하수를 찾았습니다.

동포여러분도 맑게 개인 날 밤이면 아마 은하수를 찾아보고싶을것입니다.

은하수는 《은빛을 내는 강》이라는 뜻에서 은하라고도 부르고있습니다.

이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유난히 밝게 빛나는 두개의 별이 있는데 이것을 부부별 혹은 견우성과 직녀성이라고 합니다.

은하수에는 견우직녀전설도 비껴흐르고 있습니다.

이 전설은 하늘나라에서 사는 견우라는 총각과 직녀라는 처녀사이의 사랑을 구전으로 전해내려온 인정세태이야기입니다.

전설은 5세기이전 고구려사람들속에서 창조되어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5세기초에 건설된 고구려의 덕흥리무덤벽화에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소를 물고가는 《견우》와 검정개를 데리고 서있는 《직녀》를 형상한 그림을 통하여 이미 이 시기에 견우직녀전설이 널리 보급되어있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구려시기에 창조되어 민간에 널리 파급된 이 전설은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인정세계와 다정다감한 정서를 잘 반영하고있습니다.

그럼 전설의 내용을 펼쳐보겠습니다.

먼 옛날 은하수에 자리잡고있는 어느한 별나라에 인물이 곱고 마음씨 착하고 천짜는 재간이 비상한 직녀가 살고있었습니다. 그가 짝 천들은 이 나라의 보물로 되고있었습니다.

직녀는 매일 이른새벽부터 소를 물고 하늘방천을 누비며 부지런히 일하는 목동총각인 견우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나라의 포악한 왕은 견우와 직녀가 갈라져있어야 예전처럼 부지런히 일할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량쪽에 갈라져살게 하였으며 한해에 한번씩 그것도 칠월칠



석날에만 만나게 허락하였습니다.

생리별을 당한 후 상봉의 그날이 왔지만 견우와 직녀는 은하수가 너무나 깊고 넓어서 만날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애라게 찾고부르며 흘리는 눈물은 지상세계에 떨어져 장마가 지게 하였습니다.

지상세계의 사람들은 곡식이 한창 여물 때였으므로 하늘세계에서 벌어지고있는 구슬픈 사연을 알고 견우와 직녀를 동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날아오를수 있는 까마귀와 까치들을 보내어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어 견우와 직녀가 만날수 있게 하였습니다. 순간 억수로 쏟아지던 비가 멎고 하늘이 맑게 개이였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부터 해마다 칠월칠석날이 오면 까마귀와 까치들은 은하수에 다리를 놓아주러 가곤 하였습니다.

견우와 직녀를 위해 놓아준 다리를 오작교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상봉의 기쁨, 행복한 생활에 대한 념원의 상징으로 되고있습니다.

보다실이 전설은 하늘세계를 무대로 하여 펼쳐지고있으나 당시의 착취받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 그에 대한 동정과 눈물없는 행복한 생활에 대한 갈망을 량만적으로 표현하고있습니다.

전설에는 또한 순결한 사랑을 지키는것을 미덕으로 여겨온 우리 인민들의 사랑관이 반영되어있으며 정의로운것을 지향하고 불의를 타매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되어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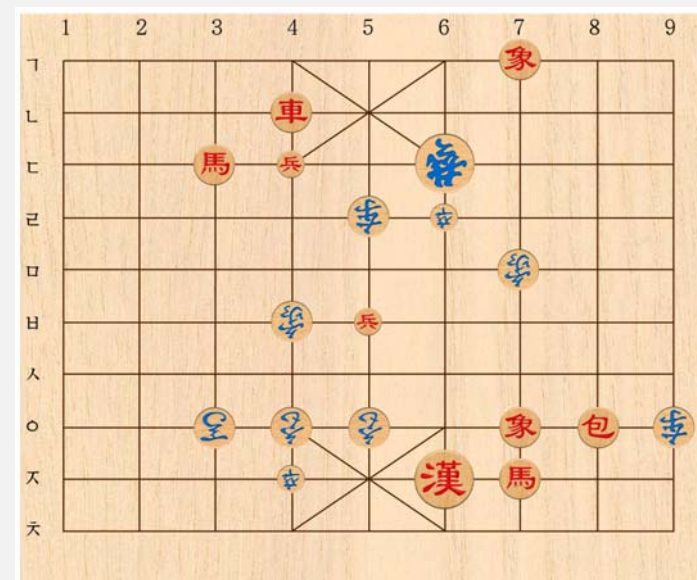
《견우와 직녀사이》라는 말은 오늘 사람들속에서 다정한 한쌍의 청춘남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휘로 표현되고있으며 《오작교를 놓아준다》라는 말은 청춘들의 사랑을 맺어준다는 말로 쓰이고있습니다.

견우직녀전설은 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오늘도 널리 전해지고있습니다.

올해의 음력 7월 7일은 8월 22일입니다.

본사기자 연 옥

장기수풀이 (8)



붉은색쪽이 먼저 써서 푸른색쪽을 이겨야 합니다.

장기격언

너무 익히면 리지기마련
때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다.
흔히 장기실천에서 쪽을 먹거나 또는 마감결속을 할 때 다 몰아놓고 야질야질하다가 이것도 저것도 다 놓쳐버릴 때를 비유하여 하는 말이다.
이 격언은 장기를 둘 때 때를 놓치지 말것과 더우기는 놀음식으로 해서 안된다라는 충고를 주는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장기수풀이 (7)에 대한 답

- 스4상르2, ㄴ5차ㄴ3, ㄷ8말ㄴ6,
- ㄱ7말ㄴ5, ㄷ1포ㄷ6, ㄱ4궁ㄴ4,
- ㄷ3상ㄷ6, ㄴ4궁ㄷ4, ㄷ6포ㄱ6,
- ㄷ4궁ㄷ5, ㄴ6말ㄱ7, ㄷ5궁ㄷ6,
- ㄱ6포ㄱ4, ㄴ5말ㄱ6, ㄱ2상ㄴ5,
- 장훈

국보적작품을 복원시킨 진재해

조국에는 력사유물로 소중한 보존되어오는 조선화 《리항복화상》이 있다.

리항복은 임진조국전쟁당시 공로를 세운 정치가이며 군사가였다. 어려서부터 부정의에 대하여서는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리항복은 전쟁의 승패가 경각에 달려있던 시각에 전쟁승리에 크게 기여하는 대결단을 내린 사람이였다.

하여 17세기 화가 리신흙은 조선화 《리항복화상》을 그렸다.

그러나 그림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 많이 손상되였다.

명화복과도 같은 이 그림을 다시 모사하는것이 큰 문제로 나섰다.

당시 조선봉건왕조의 레조판서는 도화서 화원들을 모아놓고 이 그림을 누가 모사할수 있는가고 자기의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그러나 화원들은 서로 얼굴들만 마주볼뿐 덤덤히 앉아 한숨만 내쉬였다.

《그대들도 다 알겠지만 리항복으로 말하면 임진조국전쟁시기 병조판서의 중임을 맡고 왜구를 몰아내는 싸움에서 자기의 정치적수완을 남김없이 발휘한 인물이거늘 정녕 우리 도화서에 그의 화상을 모사할만한 재사가 없단 말인가?》

레조판서는 너무도 안타까운 나머지 자못 어성이 높아지고 숨소리마저 거칠어졌다.

제아무리 화상화가의 능수요, 인물화의 명수라 할지라도 풍화속에 손상되어 얼굴과 흉부의 옷부분만이 간신히 남아있는 화상을 200년이 지난 그때에 와서 수복하는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였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찼다. 보다못해 화원 하나가 리항복의 화상을 손에 들고 변명 비슷한 소리로 말하였다.

《이 화상은 임진조국전쟁당시 국내외의 이름을 높인 화상화가이며 우리 도화서 화원이였던 리신흙선생이 그린것인데 2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분의 화법을 따를만한 인재가 나타나지 않는구려.》

그의 말에 다른 화원들도 모두 긍정하듯 머리를 끄덕이였다.

레조판서는 가슴을 통채로 불로 지지는듯한 아픔에 눈앞이 다 새까맣게 변하여 온 방안이 빙빙 도는듯싶었다.

이때 방안 한편에서 조용히 앉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듣고있던 화원 하나가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혹시 진첩사라면 이 일을 능히 감당할수 있을런지...》

그의 말에 어둡던 방안에 실오리같은 빛이라도 비끼듯 레조판서는 성급히 방금 말한 화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진첩사라니?》

《예. 벽은이라고 이름은 진재해라 부르는데 그에게 이 일을 맡기면 합당할가 하옵니다.》

레조판서는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이윽고 화원들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대들 생각은 어떤가?》

《진재해는 화상과 산수를 잘 그리기로 이름있는 화원이옵니다. 화상그림에서 그를 따를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00년전의 그림을 그가 꽤 모사할수 있겠는지...》

화원들중 그중 나이많은 화원이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럼 속히 진재해를 불러들여라.》

잠시후 기별을 받은 진재해(1691년-1769년)가 레조판서앞에 다가왔다.

준수하게 생긴 얼굴에 날카로운 코날, 그우에 류달리 못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진흑색의 억실억실한 두눈, 그의 눈가에는 비굴한 기색이란 도무지 찾아볼수 없는 자신만만함이 흐르고있었다.

《조종의 어명으로 리항복의 화상을 수복하기 위한 중대사가 <도화서>에 위임되였거늘 그대가 이 중임을 맡을수 있겠나?》

레조판서는 진재해에게 부탁절반, 위임절반의 간절한 어조로 심중히 물었다.

화원들이 진재해의 앞에 리항복의 화상을 펼

쳐놓았다. 한참이나 뚫어지게 화상을 내려다본 진재해는 드디어 결심이 섰는지 한일자로 굳게 닫겼던 입을 조용히 열었다.

《말미는 언제까지입니까?》

레조판서는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오면 어쩌나 하는 위구심으로 선자리에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뜻밖에도 진재해가 말미를 묻자 그의 손까지 덥석 잡으며 도리어 거꾸로 물었다.

《그래 언제까지면 다 완성할수 있나?》

《한달이면 되오이다.》

《한달?》

《예. 분명히 한달내로 꼭 완성하겠소이다.》

레조판서는 진재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러나 자신심이 넘쳐있는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레조판서는 진재해에 대한 믿음이 더욱 굳어져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날부터 진재해는 낮에 밤을 이어 비단쪽에 리항복의 화상을 훌륭히 모사하여 약속된 날자에 레조판서의 앞에 내놓았다.

그림을 보는 순간 레조판서는 물론 문무백관들과 도화서의 화원들은 감탄을 금할수가 없었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눈매, 높고도 큼직한 코에 두리무실한 코망울, 꼭 다문 입술과 엄숙한 얼굴표정 등은 풍부한 지략과 강한 성격, 대담하고 주대가 있으며 넓은 포부를 지닌 주인공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있었다.

《이 수염을 좀 보소이다. 가늘고 섬세한것이 진짜수염을 보는듯하며 구레나룻의 처리 또한 시작과 맺음이 정확한것이 꼭 살아있는 모습 같소이다.》

사람들은 저만큼 진재해의 묘사력의 능란하고 우수함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정말 그대는 민족의 국보가 다시금 빛을 뿌리게 한 충신중의 충신이요.》

레조판서를 비롯하여 진재해의 모사그림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모두가 진재해의 손을 꼭 잡고 오래동안 놓을줄을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임진조국전쟁시기 나라에 공을 세운 정치가이며 군사가인 리항복의 화상은 원작품과 모사품이 다 유명한 그림으로 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실장 박사 부교수 강명석



《달밤에 피리를 불며》
(100×56.7cm) 종이·담채



《리항복화상》
(66×83.5cm) 비단·채색 모사



잡지 《금수강산》은 인터넷 《조선의 출판물》 홈페이지에
조선어, 로어로 게재됩니다.

<http://www.korean-books.com.kp>

주 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 서성구역 서천동
전자우편: flph@star-co.net.kp

